

I 역병(疫病) _ 아킬레우스의 분노

노래하소서, 여신¹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²의 분노를,
아카이오이족³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통을 가져다주었으며
솔한 영웅들의 군신 혼백들을 하데스⁴에게 보내고
그들 자신은 개들과 온갖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한
그 잔혹한 분노를! 인간들의 왕인 아트레우스의 아들⁵과
고귀한 아킬레우스가 처음에 서로 다투고 갈라선 그날부터
이렇듯 제우스의 뜻은 이루어졌도다.

5

여러 신들 중에 누가 이 두 사람을 서로 싸우고 다투게 했던가?
레토와 제우스의 아들⁶이었다. 그가 왕⁷에게 노하여 진중(陣中)에
무서운 역병을 보내니 백성들이 잇달아 쓰러졌던 것이다.

10

그 까닭은 아트레우스의 아들이 아폴론의 사제(司祭)
크뤼세스를 모욕했기 때문인즉, 사제는 자기 딸을 구하려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몸값을 가지고, 포손에는 멀리 쏘는
아폴론의 화환을 잡아 맨 황금 활(筋)을 들고

아카이오이족의 날랜 함선들을 찾아가 모든 아카이오이족,
특히 백성들의 통솔자인 아트레우스의 두 아들⁸에게 간청했다.

15

“아트레우스의 두 아들과 훌륭한 정강이받이를 낸 아카이오이족이여,
그대들이 프리아모스⁹의 도시를 함락하고 무사히 귀향하는 것을
올림포스¹⁰의 궁전에 사시는 여러 신들께서 부디 허락해주시기를!
다만 제우스의 아드님이신 멀리 쏘는 아폴론을 두려워하여

20

내 사랑하는 딸을 돌려주고 대신 몸값을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다른 이카이오이족은 모두 크게 찬성하며
사제에게 경의를 표하고 빼어난 몸값을 받으라고 했으나,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사제를 난폭하게 내쫓으며 으름장을 놓았다.

“노인장! 지금 이곳에서 지체하거나 아니면 차후에라도 찾아와
속이 빈 함선들 사이에서 내 눈에 띄는 일이 다시 없도록 하시오.

그때는 홀도 신의 화환도 그대를 돕지 못할 것이요.

그대의 딸은 돌려주지 않겠소. 그러기 전에 그녀는

베를" 앞을 오락가락하고 잠 시중을 들며 제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아르고스¹²의 우리 집에서 노파가 될 것이요.

고이 물러가시오. 무사히 돌아가고 싶거든 나를 성나게 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하자 노인은 겁이 나서 그의 말에 복종했다.

그리하여 노인은 노호하는 바다의 기슭을 따라

말없이 걸어가다가 거리가 멀어지자 마릿걸 고운

레토가 낚은 아폴론 왕에게 기도했다.

“크뤼세와 신성한 킬라¹³를 지켜주시고 테베도스¹⁴를 강력히
다스리시는 은궁(銀宮)의 신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오, 스킨테우스¹⁵여! 내 일찍이 그대를 위하여 마음에 드는
신전을 지어드렸거나 황소와 염소의 기름진 넉적다리뼈들을
태워드린 적이 있다면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어 그대의 화살로
다나오스 백성들¹⁶이 내 눈물 값을 치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자 포이보스¹⁷ 아폴론이 그의 기도를 듣고
마음속으로 노하여 활과 양쪽에 뚜껑이 닫힌 화살통을
어깨에 메고 올림포스의 꼭대기에서 달려 내려왔다. 그가

움직일 때 성난 그의 어깨 위에서는 화살들이 요란하게 울렸다.

그가 다가가는 모습은 마치 밤이 다가오는 것과도 같았다.

그가 함선들에서 떨어진 곳에 앉아 화살을 달려 보내자
그의 은궁에서 무시무시한 소란이 일었다.

처음에 그는 노새들과 날랜 개들을 공격했고

다음에는 사람들 자신을 향해 날카로운 화살을 쏘아댔다.

그리하여 시신들을 태우는 수많은 장작더미가 켜 없이 타올랐다.

아흐레 동안 신의 화살들은 온 진중을 날아다녔다.

그러나 열흘째 되던 날 아킬레우스가 백성들을 회의장으로 불렀다.

흰 팔의 여신 헤라¹⁸가 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일게 했던 것이니

그녀는 다나오스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염려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빠짐없이 다 모였을 때

준족(駿足) 아킬레우스가 일어서서 그들 사이에서 말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이렇듯 전쟁과 역병이 동시에

이카이오이족을 제압한다면 실혹 죽음은 면하더라도

우리는 제앙에 쫓겨 고향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 같소이다.

하나 일탄 예언자나 사제나 또는 해몽가(解夢家)에게

—꿈도 역시 제우스에게서 나오는 것이니까— 물어보도록 합시다.

그는 아마 포이보스 아폴론이 노여워하시는 까닭이 무엇인지,

서약¹⁹ 때문에 화가 나셨는지 아니면 헤카툼베²⁰ 때문인지 말해줄 것이요.

새끼 양들이나 흙집을 네 없는 염소들을 태워드리는 구수한 냄새를
맡으시고는 신이 혹시 우리를 파멸에서 구해주실지 모르니 말이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좌중에서
테스토르의 아들 켈카스가 일어섰다. 그는 가장 뛰어난 예언자로
현재의 일과 다퉈을 일과 지난 일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는 또 포이보스 아폴론이 그에게 부여한 예언력에 힘입어
아카이오이족의 함선들을 일리오스²¹로 인도해온 사람이기도 하다.
킬키스는 그들 사이에서 좋은 뜻에서 열변을 토하며 말했다.

“오오, 제우스의 사랑을 받는 아킬레우스여! 그대가 나더러
멀리 쫓는 이 폴룩 왕이 노여워하시는 까닭을 말하라고 하시니
내 이제 말씀드리겠소이다. 하나 그대는 내게 약속하고 맹세해주시오.
진실로 말과 행동으로 기꺼이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이요.

내가 하는 말이 전(全) 아르고스인²²들을 강력하게 통치하시고
아카이오이족이 복종하는 분을 노엽게 할 것이 분명하니 말이요.
왕은 미친한 자에게 성별 때는 더욱 강력한 법이요.

비록 지금 당장은 그가 노여움을 참는다 하더라도
인간됨을 할 때까지는 가슴속에 언제나 원한을 품게 마련이지요.

그러니 그대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의사가 있는지 말해주시오.”

그에게 준족 아킬레우스가 이런 말로 대답했다.
“두려워 말고 그대가는 대로 신의 뜻을 말하시요.

킬키스여! 그대가 다나오스 백성들에게 신의를 고할 때 기도드리는
제우스의 사랑을 받는 아폴론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살아서 대지 위에서 햇빛을 보는 동안에는
전 다나오스 백성들 중에 누구도 속이 빈 함선들 앞에서 그대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못할 것이요. 그대가 말한 자가 아카이오이족 중
가장 위대하다고 자부하는 아가멤논일지라도 말이요.”

그러자 나무랄 데 없는 예언자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신이 노여워하시는 까닭은 서약이나 헤카툼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사제 때문이요. 죽 이가멤논이 그를 모욕하여 그의 딸을
돌려주지도 않고 몸값을 받으려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요. 그래서

멀리 쫓는 신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던 것이요 또 앞으로도
주실 것이요. 그러니 눈매 고운 그 소녀를 몸값도 받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돌려주고 신성한 헤카툼베를 클뤼세로 가져간다면
그때는 아마 신께서도 노여움을 푸시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나,
그전에는 다나오스 백성들을 수척스런 파멸에서 구해주시지 않을 것이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들 사이에서

넓은 지역을 통치하는 이트레우스의 아들 영웅 이가멤논이
마음이 언짢아서 일어섰다. 그의 심장은 노여움으로 가득 차
잠게 물들었고 그의 두 눈은 번쩍이는 불꽃과도 같았다.

그는 맨 먼저 킬키스를 향해 악의를 품고 말했다.

“제앙의 예언자여!²³ 그대는 내게 한번도 좋은 말을 하지 않는구려.
그대는 마음속으로 언제나 나쁜 일만 예언하고 싶어 할 뿐.

좋은 일을 말하거나 이루어지게 한 적은 한 번도 없던 말이요.
방금도 그대는 예언을 한답시고 다나오스 백성들 앞에서 열변을

토했소. 멀리 쫓는 신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내가 오히려 클뤼세이스 처녀 자신을 내 집에 불들어두고 싶어서

그녀의 값진 몸값을 받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이요.
아닌 게 아니라 나의 결혼한 아내 클뤼티임네스트라²⁴보다도

나는 그녀를 더 좋아하요. 그녀는 용모와 몸매가
그리고 재치와 숨씨가 내 아내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으니까요.

하나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면 내 기꺼이 그녀를 돌려주겠소.

나는 백성들이 죽기보다는 살기를 바라니까요. 다만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지체 없이 명예의 선물을 마련하도록 하시오.

아르고스인들 중 나만 혼자 선물을 받지 못한대서야 말이 되겠소.

그대들도 보드시피 내 선물은 다른 곳으로 가고 있으니 말이요.”

그러자 그에게 준족의 고귀한 아킬레우스가 대답했다.

“가장 영광스런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또한 가장 욕심 많은 그대여! 기상이 늑름한 아카이오이족이 어떻게 그대에게 선물을 줄 수 있겠소? 우리는 공동 재산이 많이 쌓여 있는 곳을 알지 못하오.

함락한 도시²⁵들에서 노획한 전리품들은 이미 분배가 끝났고 백성들에게서 그것을 도로 거두어들인다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요.

이무튼 지금은 그 여인을 신에게 내주시오. 하지만 언젠가 제우스께서 튼튼한 정벽으로 둘러싸인 트로이아 시를 함락케 해주시면

그때는 아카이오이족이 그대에게 세 배 네 배의 보상을 해줄 것이요.”

그에게 통치자 아가멤논이 이런 말로 대답했다.

“신과 같은 아킬레우스여! 그대 아무리 용감하기로 나를 이렇게 피로 속일 생각은 미시오. 나를 속여 넘기거나 설득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래, 그대는 선물을 갖고 있으면서 나는 내 것을 빼앗기고도 기만히 앉아 있기를 바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대는 나에게 그 여인을 돌려주라고 명령하는 것이요? 기상이 늑름한 아카이오이족이

내 소원대로 손실을 보상해줄 만한 명예의 선물을 준다면 좋소.

하나 만약 그들이 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내 몸소 가서 그대의 것이든 아이아스²⁶의 것이든 오뒷세우스²⁷의 것이든 가져가겠소.

그때는 내가 찾아가는 자에게 노여움이 남게 될 것이요.

하나 이 문제는 차후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저, 지금은 검은 배를 신성한²⁸ 바다 위로 끌어내리고 지척 없이 선원들을 모집하여 헤카톤배를 배에 싣고 불이 에벤 크뤼세이스도 테우도룩 합시다.

그리고 아이아스든 이도메네우스²⁹든 고귀한 오뒷세우스든 아니면 모든 인간들 중 가장 무서운 그대 펠레우스의 아들이든

여러 왕들 중에 누가 그들의 지휘자가 되어 우리를 위하여 제물을 바치고 멀리 솟은 신의 마음을 달래도록 하시오.”

그를 노려보며 준족 아킬레우스가 말했다.

“오오, 그대 파렴치한 자여, 그대 교활한 자여!

이래서야 아찌 아카이오이족 중 어느 누가 그대의 명령에

기꺼이 복종하여 심부름을 가거나 적군과 함꼐 싸울 수 있겠소?

내가 싸우려고 이곳에 온 것은 트로이아의 창수(樁手)들 때문이 아니요. 그들은 내게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으니가요.

그들은 내 소나 말들을 약탈한 적도 없거니와

전사들을 기르는 기름진 포티아³⁰ 땅에서 내 곡식을

망쳐놓지도 않았소이다. 우리 사이에는 수많은 울창한 산들과 파도 소리 요란한 바다가 가로놓여 있기 때문이요.

그대, 파렴치한 철면피여! 우리가 그대를 따라 이곳에 온 것은 메넬라오스와 그대를 위하여 트로이아인들을 응징³¹함으로써 그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함이었소.

그런데 이런 사실은 염두에 두지도, 아랑곳하지도 않고 내가 피땀 흘려 얻었고 아카이오이족의 아들들이 내게 준 내 명예의 선물을 그대가 몸소 빼앗아가겠다고 위협하다니!

아카이오이족이 트로이아인들의 변화한 도시를 함락할 때마다 그대와 동등한 선물을 나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소.

치열한 전투의 노고를 더 많이 감당해낸 것은 내 팔이었지만 분배할 때에는 그대의 선물이 월등히 컸으며, 나는 지치도록 싸운 뒤 보잘것없는 물건을 소중히 간직한 채 함선들로 돌아오곤 했소.

이젠 포티아로 돌아가겠소. 부리처럼 흰 함선들을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편이 훨씬 낫겠소. 여기서 모욕을 받아가며

그대를 위하여 부(富)와 재물을 쌓아줄 생각은 추호도 없소이다.”

그에게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이 대답했다.

“그대 생각이 정 그렇다면 제발 도망가시오. 굳이 나를 위하여 여기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지 않겠소. 내 길에는 그대 말고도 내 명예를 높여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고 특히 조안자 제우스³²께서 계시요. 나로서는 제우스께서 양육하신 여러 왕들 중 그대가 제일 밍소.

그대는 밤낮 말다툼과 전쟁과 싸움길만 좋아하니 말이요.

그대가 매우 강력하기로 그것 역시 신이 주신 것이 아니겠소.

그대의 함선들과 전우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 워르미도네스족³³이나 잘 다스리시오. 나는 그대 일에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며

그대가 분개하더라도 개의치 않을 것이요. 하나 이것만은 일러두겠소!

포이보스 이폴론께서 나에게서 크뤼세이스를 빼앗아가시오

나는 그녀를 내 배에 태워 나의 전우들과 함께 보낼 것이요.

그러고는 내 몸소 그대의 막사로가 그대의 명예의 선물인

불이 예쁜 브리세이스를 데려갈 것이요. 그러면 내가 그대보다

얼마나 더 위대한지 잘 알게 될 것이며, 다른 사람도 앞으로 감히

내게 대등한 언사를 쓰거나 맞설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요.”

아가멤논이 이렇게 말하자 펠레우스의 아들에게는

슬픔이 닥쳤고, 그의 마음은 털복숭이 가슴속에서 망설였다.

넓적다리에서 날카로운 칼을 빼어 들고 사람들을 모두 쫓아버리고

그 자신은 아트테우스의 아들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분을 삭이고 마음을 억제할 것인가 하고.

그가 마음속으로 이런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며 칼집에서

큰 칼을 빼는 사이 하늘에서 아테네³⁴가 내려왔으니,

이 두 사람을 똑같이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염려해주는 흰 팔의 여신 헤라가 보냈던 것이다.

아테네는 펠레우스의 아들 뒤에 서서 그의 금발을 잡아당겼다.

그러나 그에게만 보일 뿐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

그러자 감쪽 놀라 뒤돌아선 이킬레우스가 곧 팔라스³⁵ 아테네를

알아보았으니, 그녀의 두 눈이 무섭게 빛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향해 물 흐르듯 거침없이 말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이기스³⁶를 가지신 제우스의 따님이여!

아트테우스의 아들이 아가멤논의 교만을 구경하기 위험입니까?

내가 지금 그대에게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즉,

이제 곧 그는 자신의 교만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네가 대답했다.

“나는 그대의 분노를 가라앉히려 하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대가

내 말에 복종하겠다면 말이다. 그대들 두 사람을 똑같이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염려해주시는 흰 팔의 여신 헤라가 보내셨다.

그러니 저, 말다툼을 중지하고 칼을 빼지 말도록 하라.

다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말로 그를 꾸짖도록 하라.

내가 지금 그대에게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즉,

지금 이 모욕으로 말미암아 빼어난 선물들이 세 배나 더 그대에게

돌아가게 되리라. 그러니 자제하고 우리에게 복종하도록 하라.”

그녀에게 준족 아킬레우스가 이런 말로 대답했다.

“그대들 두분의 말씀이라면, 여신이여! 마음속으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복종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으니까요.

신들에게 복종하는 자의 기도는 신들께서도 가까이 들어주시는 법이지요.”

이렇게 말하고 그는 은으로 만든 칼자루 위에 무거운 손을 얹어

큰 칼을 도로 칼집에 밀어 넣었고, 아테네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신은 다시 올림포스를 향해
아이기스를 가진 제우스의 궁전에 있는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펠레우스의 아들은 여전히 분을 삭이려 하지 않고
아트레우스의 아들에게 다시 신랄한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그대 주정뱅이여, 개³⁷ 눈에 사슴의 심장을 가진 자여!

그대는 일찍이 싸움터에 나가려고 백성들과 함께 무장하거나

아카이오이족의 장수들과 함께 매복할 용기를 내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소. 그대에게는 그것이 죽음의 운명으로 보였을 테니까요.

하긴 그보다는 아카이오이족의 넓은 진영에서 누구든지 그대에게

반대하는 자의 선물을 빼앗아 가지는 편이 훨씬 낫겠지요.

백성을 잡아먹는 왕이여! 그것도 그대가 하찮은 자들을 다스리기 때문이요.

아니라면,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그대의 횡포도 이번이 끝이 되었으리라.

하지만 내 그대에게 일리두겠고, 엄숙한 맹세로 내 말을 뒷받침하겠소.

보시오! 이 홀은 산속에 있는 나무둥치를 한번 떠나온 이상

있이나 가지가 돌아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청둥이 앞과 접질을

벗겨버렸으니 다시 새파랗게 자라나지도 못할 것이요.

그리고 지금은 제우스의 위임을 받아 벌을 지키는 아카이오이족의

아들이 판결을 내릴 적에 이 홀을 손에 들지요. 그러니 이것은

그대에게 엄숙한 맹세가 될 것이요. 내 이 홀을 두고 맹세하거나와,

아카이오이족의 아들이 모두들이 아킬레우스를 아워워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요. 술한 사람들이 남자를 죽이는 헤토르³⁸의 손에

죽어 쓰러질 때 그대는 아무리 마음이 이파도 그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요.

그때는 아카이오이족 중에 가장 훌륭한 자를 털끝만큼도 존중하지

않았던 일이 후회되어 그대는 자신의 심장을 쥐어뜯게 될 것이요.”

펠레우스의 아들이 이렇게 말하고 황금 못을 박은

홀을 땅에 내던지고 그 자신은 자리에 앉으니,

아트레우스의 아들은 더욱 화가 났다. 그러자 좌중에서

펠로스인들의 목소리³⁹가 낭랑한 웅변가인 탈콤한 말을 하는

네스토르가 일어섰으니, 그의 혀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꿀보다 더 감미로웠다. 그는 신성한 펠로스에서

이전에 자기와 함께 태어나서 자란 인간의 두 세대가 이미

시들어지는 것을 보았고, 지금은 세 번째 세대를 다스리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그는 좋은 뜻에서 열변을 토하며 말했다.

“아아, 진실로 아카이오이족의 땅에 큰 슬픔이 닥쳤소이다!

프리아모스와 그의 자식들과 다른 트로이아인들은

회의와 전투에서 다나오스 백성들 가운데 제일인자들이

그들을 두 사람이 서로 다투었다는 이야기를

거초지중 다들게 되면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할 것이요.

그러나 자, 내 말을 들으시오. 그대들은 둘 다 나보다 젊으니까요.

나는 일찍이 그대들보다 더 강력한 사람들과도 시귀었지만,

그들은 결코 나를 무서한 적이 없었소.

페이리토오스³⁹와 백성들의 목자인 드뤼아스,

카이네우스와 에사디오스, 신과 같은 폴리페모스와

불사신과도 같은 아이게우스의 아들 테세우스,⁴⁰

이런 전사들을 나는 다시는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것이요.

그들은 지상에 사는 인간들 중 가장 강력한 자들이었소.

그들은 스스로 가장 강력한 자들이었고, 또 가장 강력한 자들이

산속의 아만족⁴¹과 싸워 이들을 완전히 퇴치해버렸던 것이요.

나는 떠나면 펠로스 땅에서 그들을 찾아가 사귀었소.

그들이 불렀기 때문이요. 그래서 나는 전투에서 내 할 일을

다했던 것이요. 오늘날 지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 가운데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요. 그런데도 그들은 내 조언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였고 내 말에 귀를 기울였소.

그대들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그제 더 이로우를 테니까요.

그대 아무리 위대하기로 그에게서 여인을 빼앗지 마시오. 처음부터

아카이오이족의 아들들이 명예의 선물로 그에게 준 것이니

그대로 두시오. 그리고 그대 펠레우스의 아들이여! 그대는

힘으로 왕에게 대항하지 마시오. 제우스께서 영광을 주신.

홀을 가진 왕에게는 훨씬 더 큰 명예가 돌아가는 법이요.

그대 아무리 강력하고 그대를 놓아준 어머니가 여신일지라도,

그가 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니 그대보다 그가 더 위대하요.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그대는 노여움을 거두시오. 제발 부탁이니

아킬레우스에 대해 그대는 분을 식이도록 하시오. 그는 역시

전 아카이오이족에게 사악한 전쟁을 막아주는 큰 울이기 때문이요.”

그에게 통치자가가뻤는이 이런 말로 대답했다.

“노인장! 그대의 그 말은 진실로 모두 도리에 맞는 말이요.

하나 저 사람은 모든 이 위에 군림하려 들며, 모든 이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또 모든 이에게 명령하기를 원하요.

하지만 아마 그에게 복종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요.

영생하는 신들께서 그를 창수로 만드셨기로서니

이렇게 욕실할 권리까지 그에게 주셨단 말이오?”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고귀한 아킬레우스가 대답했다.

“내 만일 그대가 무슨 명령을 내리든 매사에 그대에게 복종한다면

정말이지 나를 전쟁이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불려도 좋소.

그 따위 명령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나 내리시오.

나는 다시는 그대에게 복종하지 않을 작정이니까요.

내 한 가지만 일러두겠으니 그대는 꼭 명심해두시오.

나는 그 소녀 때문에 그대나 다른 사람에게 완력을 쓰지는 않겠소.

그대들이 주었다가 도로 빼앗아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결코 날랜 내 함선 옆에 있는 나의 다른 소유물들은

내 뜻을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요.

어디 한번 해보시오. 그랬다가는 여기 이 사람들도 보게 될 것이요.

그대의 검은 피가 내 창끝에서 얼마나 빨리 솟아오르는지를.”

이리하여 두 사람은 격렬한 말다툼을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카이오이족의 함선들 옆에서의 회의를 해산했다.

펠레우스의 아들은 메노이티오스의 아들⁴²과 친구들을 데리고

자신의 막시들과 균형 잡힌 함선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한편 아트레우스의 아들은 날랜 배 한 척을 바다 위에 띄우고는

선원 스무 명을 뽑아 신에게 바칠 헤카툼베를 싣고

불이 예쁜 크뤼세이스도 데려다 태웠다.

그리고 지락이 뛰어난 오렛세우스가 지휘자로서 그들과 동행했다.

그들은 배에 올라 습한 바닷길을 따라 나아갔고,

아트레우스의 아들은 백성들에게 목욕재계하도록 명령했다.

그래서 그들이 목욕재계하고 부정한 것을 모두 바다에

던져버리고 나서 추수할 수 없는 바다의 기슭에서

황소들과 염소들의 흠잡을 데 없는 헤카툼베를 이폴론에게 제물로

바치니, 구수한 냄새가 연기 속을 맴돌며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듯 그들은 진영 안 도처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그러나 이가뻤논은 앞서 아킬레우스에게 위협했던 싸움을

그만두려 하지 않고, 둘 다 자신의 진영이자 날렵한 시종⁴³인

탈튀비오스와 에우튀바테스에게 말했다.

“너희는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막사에 가서
불이 예쁜 브리세이스의 손을 잡고 이리로 데려오도록 하라.
만일 그가 내주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몸소 가리라. 그에게는 그것이 더욱 쓰라리리라.”

그는 이런 말로 그들을 내보내며 으름장을 놓았다.
마지막 두 사람은 추수할 수 없는 바다의 기슭을 따라
튀르미도네스족의 막사들과 함선들이 있는 곳으로 걸아갔다.

그들은 아킬레우스가 그의 막사와 검은 함선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들을 보자 아킬레우스는 마음이 언짢았다.
그래서 두 사람은 왕에 대한 두려움과 외경심 때문에

우두커니 서 있을 뿐 감히 말하거나 묻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으로 알아차리고 그들을 향해 말했다.

“잘 왔네, 전령들이여, 제우스와 인간들의 사자들여!

가까이 오게나. 내게 잘못을 저지른 것은 그대들이 아니라
브리세이스 소녀 때문에 그대들을 보낸 아가멤논이지.

자, 제우스의 후손인 파트로클로스여! 소녀를 데리고 나와
이들이 데려가게 내주게나. 그러나 후일 수치스런 파멸에서
배정들을 구하기 위하여 나를 필요로 할 때

이 두 사람이 축복 받은 신들과 필멸의 인간들 앞에서,
그리고 저 무정한 왕 앞에서 내 증인이 되도록 하게나.

그는 진실로 사악한 마음을 품고는 미쳐 날뛰고 있고
앞도 뒤도 볼 줄 모르나, 이래서야 어찌 그의 아카이오이족이
자신들의 함선들 옆에서 안전하게 싸울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자 파트로클로스는 사랑하는 전우가 시키는 대로

불이 예쁜 브리세이스를 막사에서 데리고 나와 그들이 데려가도록
내주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아카이오이족의 함선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고, 여인도 마지못해 그들을 따라갔다.
그러자 아킬레우스는 눈물을 흘리며 전우들 곁을 떠났다.

그는 잿빛 바다⁴⁴의 기슭에 홀로 앉아 끝없는 바다를 바라보며
두 손을 들어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열심히 기도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저를 단명하도록 넣어주셨으니, 높은 곳에서
천둥을 치시는 올림포스의 제우스께서는 제게 명예만이라도
주셨어야죠. 하긴 늘 지금 그분께서는 작은 명예도 주시지 않았어요.

넓은 지역을 통치하는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이
저를 모욕하여, 제 명예의 선물을 몸소 빼앗아 가셨으니 말예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말하자 그의 존경스런 어머니가 바다
깊숙한 곳, 그녀의 늙은 아버지⁴⁵ 곁에 앉아 있다가 그의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지체 없이 잿빛 바다 속에서
안개처럼 떠올라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들 앞에 앉아
손으로 쓰다듬고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내 아들이, 왜 울고 있느냐? 네 마음속에 무슨 슬픔이 생겼느냐?
숨김없이 말해보아라. 우리 둘 다 알도록 말이다.”

그녀에게 준족 아킬레우스가 슬피 탄식하며 말했다.

“어머니께서 다 알고 계실 일을 제가 왜 말씀드리죠?

우리는 에에티온⁴⁶의 신성한 도시 테베⁴⁷로 가서 그곳을
폐허로 만들고 모든 것을 이리로 싣고 왔어요. 그래서 전리품을
아카이오이족의 아들이들 지휘들끼리 공평하게 분배했고
아트레우스의 아들을 위해서 불이 예쁜 크뤼세이스를 뺐어요.
그러나 멀리 쫓는 아폴론의 사제 크뤼세스가 딸을 구하려고

헤어릴 수 없이 많은 몸값을 가지고, 또 손에는

멀리 쏘는 아폴론의 화환을 감아 맨 황금 줄을 들고

청동 갑옷을 입은 이카이오이족의 날랜 함선들을 찾아와서
모든 이카이오이족, 그중에서도 특히

백성들의 통솔자인 아테우스의 두 아들에게 간청했어요.

그러자 다룬 이카이오이족은 모두 크게 찬성하며

시체에게 경의를 표하고 배어난 몸값을 받으라고 했으나,

아테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시체를 난폭하게 내쫓으며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래서 노인은 성이 나서 돌아갔어요. 그러나 아폴론은

그를 매우 사랑하서는 까닭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르고스인들을 향해 사악한 화살을 쏘아 보내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무더기로 죽어갔고 이카이오이족의 넓은 진중에는
도처에 신의 화살들이 날았어요. 마침 사정을 잘 아는
예언자가 멀리 쏘는 신의 뜻을 알려주기에,

제가 맨 먼저 지체 없이 신의 마음을 탈래도록 권했어요.

그러나 아테우스의 아들은 화를 내며 벌떡 일어서더니
저를 향해 위협의 말을 했고, 또 그대로 실행했어요.

눈매 고운 이카이오이족이 여인을 날랜 배에 태워

크뤼세로 보내고 왕⁴⁸에게 바칠 선물을 가져가는 동안,

방금 전령들이 와서 브리세우스의 딸을, 이카이오이족의
아들이 제게 준 소녀를 제 막사에서 데려갔어요.

그러니 어머니! 가능하시다면 이 아들을 도와주세요.

어머니께서 일찍이 말과 행동으로 제우스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린
적이 있다면 지금 올림포스로 가서 제우스께 간청해보세요.

제 아버지의 궁전에서 어머니께서 자랑하시는 것을 여러 번
들었어요. 일찍이 올림포스에 사는 다른 신들,

헤라와 포세이돈⁴⁹과 팔라스 아테네가 그분을 포박하려 했을 때

여러 불사신들 중 오직 어머니만이 검은 구름의 신인

크로노스의 아드님⁵⁰을 수척스런 파멸에서 구해주셨다고 말해요.

그때 여신인 어머니께서 그곳에 가셔서 백 개의 딸을 가진 자를

지체 없이 높은 올림포스로 불러들여 그분을 사슬에서 풀어주셨지요.⁵¹

신들은 그를 브리아테오스⁵²라고, 인간들은 모두 아이가이온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그가 자기 아버지보다도 더 강력하기 때문이지요.

그가 자신의 영광을 뽐내며 크로노스의 아드님 곁에 버티고 앉자

축복 받은 신들은 그가 두려워 감히 포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일들을 일깨워주시며 곁에 앉아 그분의 무릎을 잡으세요.

그러시면 아마 그분께서 트로이아인들을 도와 도록당하는 이카이오이족을

바닷가의 뱃고물들 사이에 가두실 거예요. 그러면 모두들 그들의 왕이

어떤 자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넓은 지역을 통치하는

아테우스의 아들 아가멤논도 깨닫게 되겠지요. 이카이오이족 중

가장 용감한 자를 털끝만큼도 존중하지 않았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테티스가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대답했다.

“아아, 내 아들이! 이런 불행을 당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낳아

길렀던 말이나? 내 명이 짧고 길지 않을진대, 너는 마땅히

눈물과 고통 없이 함선들 옆에 앉아 있었어야 할 것이다.

하거늘 지금 너는 명도 짧은 데다 또 누구보다도 불행하구나.

이런 비참한 운명을 맞보게 하려고 내가 궁전에서 너를 낳았던 말이나!

아무튼 내 말을 천둥을 좋아하시는 제우스께 전하고자
내 몸소 눈 덮인 올림포스로 가겠다. 아마 돌아주실 것이다.

그동안 너는 빨리 달리는 함선들 옆에 앉아 아카이오이족을
원망하며 전쟁에는 일절 관여하지 마라.

제우스께서는 어제 나무랄 데 없는 아이티오페스족⁵³의 잔치에
참석코자 오케아노스⁵⁴로 가셨고, 다른 신들도 모두 따라갔다.

열이틀째 되는 날 다시 올림포스로 돌아오실 것인즉,

내 그때 문턱이 청둥으로 된 제우스의 궁전으로 가서
그분의 무릎을 잡겠다. 아마 내 청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아들을 그곳에 남겨두고 떠나갔고

그는 예쁜 허리띠를 맨 여인을 그들이 그의 뜻을 거슬러
억지로 빼앗아 간 것을 마음속으로 원망하고 있었다.

한편 오뒷세우스는 신성한 헤카툼베를 싣고 크뤼세에 도착했다.

그들은 수심이 매우 깊은 포구 안에 들어서자,

뜻을 감아 검은 배 안에 넣어두고 지체 없이

앞맞줄들을 늦추어 돛대를 돛대받침대 위에 댄고는
노를 지어 선창으로 나아갔다. 이윽고 선창에 닿자

돌 닢을 여러 개 던지고, 고물 맞줄⁵⁵을 물에 다 댔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파도가 부서지는 바닷가에 내려
멀리 솟는 아폴론에게 바칠 헤카툼베를 부렸고,

크뤼세이스도 바다를 여행하는 배에서 내렸다.

그러자 지략이 뛰어난 오뒷세우스가 그녀를 제단으로 데려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주며 말했다.

“크뤼세스여! 인간들의 왕이키메논이 나를 보내, 그대에게 딸을
데려다주고 포이보스에게 다나오스 백성들의 이름으로 신성한
헤카툼베를 바치게 했소이다. 이는 다아르고스인들에게 수많은
탄식과 슬픔을 가져다주신 왕⁵⁶의 마음을 달래기 위함이었.”

이렇게 말하고 딸을 품에 안겨주자 사제는 사랑하는 딸을
반기이 맞았다. 그들은 지체 없이 신에게 바칠 신성한
헤카툼베를 잘 만든 제단 주위에 질서 있게 진열한 다음,
손을 씻고 재물에 뿌릴 보리를 집어 들었다.

크뤼세스가 두 손을 들고 그들을 위하여 큰 소리로 기도했다.

“크뤼세와 신성한 킬라를 지켜주시고 테네도스를 강력히
다스리시는 은궁의 신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에 그대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어 내 명예를 높여주시고자
아카이오이족 백성들을 심히 치셨나이다.

그와 같이 오늘날도 내 소원을 이루어주소서

다나오스 백성들을 수치스런 파멸에서 구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자 포이보스 아폴론이 그의 기도를 들었다.

기도하고 보리를 뿌리고 나서 그들은 먼저 재물들의 머리를
뒤로 찌르고는 재물들을 잡아 꺾질을 빚기고 넓적다리들에서
살코기를 발라낸 다음 넓적다리뼈들을 두 점의 기름 조각으로 싸고

그 위에 다시 날코기를 얹었다. 이것들을 노인이 장작불 위에
올려 태워드리며 그 위에 반짝이는 포도주를 부었다.⁵⁷

그의 곁에는 젊은이들이 손에 오지창(五枝槍)을 들고 서 있었다.
이윽고 넓적다리뼈들이 다 타자 그들은 내장을 맛보고 나서

나머지는 잘게 썰어 꼬챙이에 꿰어서는

장성 틀여 구운 뒤 모두 불에서 내렸다.

그러하여 일이 끝나자 그들은 음식을 차려 먹었는데,
공평한 식사에 마음에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윽고 먹고 마시는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젊은이들이
희석용(稀釋用) 동이⁵⁸마다 술을 가득 담아 와서는 먼저 술잔에

조금 부어 현주하게 한 다음 병 돌아가며 각자에게 제 몫을
따리주었다. 그리하여 이카이오이족의 젊은이들이
은종일 아름다운 찬가(讚歌)를 부르며 노래로 멀리 쏘는 신의
마음을 달래니, 신도 듣고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이윽고 해가 지고 아들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 배의 고물 밧줄 옆에서 잠을 잤다.

이른 아침에 태어난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새벽의 여신이
나타나자, 그들은 이카이오이족의 넓은 진영을 향해 커로에
을랐고 멀리 쏘는 아폴론이 그들에게 순풍을 보내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돛대를 세우고 흰 돛을 달아 올리자

돛은 가슴에 바람을 잔뜩 안았고 배가 나아갈 때
용골 주위에서 검푸른 파도가 요란한 소리를 냈다.
배는 파도를 헤치며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다.

이윽고 이카이오이족의 넓은 진영에 도착하자
그들은 검은 배를 모래톱 위에 높이 끌어올리고
그 밑에 큰 버팀목들을 피어놓더니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자신의 막사와 함선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제우스의 후손인 펠레우스의 아들 준족 아킬레우스는
뿔리 달리는 함선들 옆에 앉아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다.
그는 남자의 영광을 높여주는 회의장에도 싸움터에도
나가지 않고 이렇게 자기 처소에 틀어박혀
혼자 에테우며 전쟁과 함성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열두 번째 새벽이 다가왔을 때
영생하는 신들은 제우스를 앞세우고 모두 올림포스로 돌아왔다.
그리고 테티스도 아들의 부락을 잊지 않고

마더의 불결 속에서 떠올라 아침 일찍

거대한 하늘과 올림포스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무소리가 멀리 들리는⁵⁹ 크로노스의 아들이 다른 신들과 떨어져
봉우리가 많은 올림포스의 장상봉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면전에 앉아 왼손으로

그의 무릎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의 턱을 만지며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 왕에게 간청했다.

“아버지 제우스여! 내 일찍이 여러 신들 중에서 말이나 행동으로
그대를 도운 적이 있다면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어 내 이들의
명예를 높여주소서. 그 애는 모든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요절할
운명을 타고났나이다. 하기를 지금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이
그 애를 모욕하여 그 애의 명예의 신물을 몸소 빼앗아 가셨나이다.
그러나 그대가 그 애의 명예를 높여주소서, 조인자이신 올림포스의
제우스여! 이카이오이족이 그 애를 존중하고 그 애에게 전보다 더 큰
경의를 표할 때까지 부디 트로이아인들에게 승리를 내리소서.”

이렇게 말했다. 구름을 모으는 제우스는 아무 대꾸도 않고
한참 동안 잠지로 앉아 있었다. 그래서 테티스는
그의 무릎을 잡고 매달리며 또다시 물었다.

“이제 확실히 약속해주시고 머리를 끄덕여주소서. 아니면
거절을 하소서. 그대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으니까요. 그러시면
모든 신들 중에서 내가 얼마나 홀대 받는지 잘 알게 되겠나이다.”

구름을 모으는 제우스가 그녀에게 크게 역정을 내며 말했다.
“헤라가 모욕적인 말로 나를 노엽게 할 때마다

나를 그녀와 다투게 할 생각이라면 참으로 유감스런 일ियो.
그러잖아도 그녀는 불사신들이 모인 앞에서 늘 나를 비난하고,

전투에서 내가 트로이아인들을 편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소.

그러나 그때는 헤라가 눈치 채지 않도록 어서 떠나도록 하시오.

그 일이라면 내가 잘 알아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소.

자, 내가 머리를 꼬덕이니 그때는 믿어도 좋을 것이요.

이것이 여러 불사신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표요.

내가 일단 머리를 꼬덕여 약속한 말은 돌이킬 수도 없고

헛되지도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법이요.”

이렇게 말하고 크로노스의 아들이 검은 눈썹을 숙이니

왕의 머리에서 신성한 고수머리가 흘러내렸고

거대한 올림포스가 흔들렸다.

들은 이렇게 의논하고 헤어졌다. 그녀는

번쩍이는 올림포스에서 깊은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고,

제우스는 자기 궁전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여러 신들이

그들의 아버지를 위하여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무도 감히 그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의 앞에서 모두

일어섰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옥좌 위에 앉았다.

그러나 헤라는 바다 노인의 딸 은족의 테티스가

그와 밀담하는 것을 보아서 알고 있던 터라,

지체 없이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에게 모욕적인 말을 건넸다.

“그대, 교활한 이여! 어느 신이 그대와 밀담했지요?

그대는 무슨 결정을 내릴 적이면 언제나 내 결을 떠나

몰래 생각하기를 좋아했고, 자기 계획을

자진하여 내게 말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자 그녀에게 인간들과 신들의 아버지가 대답했다.

“헤라여! 그대는 내가 말한 바를 무엇이든 다 알려고 하지 마시오.

그대 비록 내 아내지만 그것은 지나친 욕심이요.

그대가 들어서 좋을 일이라면 모든 신들과 인간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결코 그대보다 먼저 알게 되지는 못할 것이요.

하나 내가 다른 신들과 떨어져서 생각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대도 시시건전 꼬치꼬치 캐묻지 마시오.”

그러자 그에게 황소 눈의 존경스런 헤라가 대답했다.

“가장 두려운 크로노스의 아들이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게요?

정말이지 나는 전부터 그대에게 꼬치꼬치 캐묻은 적이 없으며

그대는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무슨 일이든 원하는 대로

결정했어요. 그러나 이번만은 바다 노인의 딸 은족의 테티스가

그대를 속여 넘긴 것이 아닌지 심히 두려워요. 그녀는 아침 일찍

그대 곁에 앉아 무릎을 잡았으니까요. 그대는 아킬레우스의

명예를 높이 고자 수많은 아카이오이족을 그들의 함선들 앞에서

도륙하겠다는 증표로 머리를 꼬덕였음에 틀림없어요.”

구름을 모으는 제우스가 그녀에게 이런 말로 대답했다.

“그대는 참 이상하구려. 언제나 억측이나 하며 나를 감시하니 말이요.

그래 봐야 별수가 없을 것이며, 오히려 내 마음에서 점점 더

멀어질 것이요. 그리고 그것은 그대에게 더욱 쓰라릴 것이요.

만약 그대가 말한 대로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즐거움이

될 것이요. 그러니 가만히 앉아 내가 시키는 대로나 하시오.

내가 그대를 향해 이 무적의 팔들을 휘두르는 날에는

올림포스의 신들이 다 덤벼들어도 그대를 돕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자 황소 눈의 존경스런 헤라는 겁이 나서

자신의 마음을 억제하며 잠자코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자 제우스의 궁전에 모인 히늘나라의 다른 신들도 마음이 괴로웠다.

그래서 숨겨 좋기로 이름난 해파이스토스⁶⁰가 사랑하는 어머니
원 팔의 헤라에게 호의를 보이교자 그들 사이에서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두 분께서 켈멸의 인간들의 일로 이렇게 다투시고

여러 신들이 모인 앞에서 소동을 벌이신다면 참으로 유감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태가 더 악화된다면 우리의 훌륭한 잔치는
575 아무런 흥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본래 현명한 분이시지만
제가 한 가지 충고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 제우스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꾸짖으시고 우리의 잔치를
망쳐놓으시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만일 번개의 신인 올림포스의 주인께서 우리를 자리에서 내던지려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막강하시니 말입니다.
580 그러니 저, 그분께 상냥한 말을 건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올림포스의 주인께서도 곧 마음이 누그러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별뿔 일어서서 손잡이가 돌 달린 잔을
어머니의 손에 쥐어주며 그녀를 향해 말했다.

“참으십시오, 어머니! 속이 상하시더라도 꼭 참으십시오.
585 저는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내 면전에서 얻어맞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마음이 괴롭더라도 제가 어머니를 도와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올림포스의 주인에게는 대항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분께서는 전에도 한번 제가 어머니를 구해드리려 했을 때
590 제 발을 잡고 신성한 하늘의 문턱에서 대던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종일 멀어지다가 해질 무렵 램노스 섬에
닿았을 때는 숨이 거의 끊어지다시피 했습니다.

하나 그곳에 떨어진 저를 신티에스족⁶¹이 곧 보살펴주었지요.”

이렇게 말하자 원 팔의 여신 헤라가 미소를 지었고,

595

미소를 지으며 아들에게서 잔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오른쪽으로 빙 돌아가며⁶² 희석용 동이에서
달콤한 신주(神酒)⁶³를 떠서 다른 신들에게도 빠짐없이 따라주었다.
해파이스토스가 궁전 안을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는
축복 받은 신들 사이에 그칠 줄 모르는 웃음이 일었다.

이렇게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온종일 잔치를 벌였다.

전수상찬을 나누어 먹은 데다 아폴론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포르밍크스⁶⁴를 연주하고 무사 여신들이 번갈아 고운 목소리로
노래하니 모두들 마음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마침내 찬란한 햇빛이 지자

그들은 쉬려고 각자 자기 침으로 돌아가셨으니,

그들 각자를 위하여 유명한 절름발이 해파이스토스가
교묘한 숨끼로 집을 지어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번개의 신인 올림포스의 제우스도 달콤한 잠이
찾아올 적마다 늘 쉬곤 하던 침상으로 갔다. 그는 거기에 올라가
잠을 청했고, 그의 곁에는 황금 옥좌의 헤라가 누워 있었다.

600

600

605

헤토르와 아이아스의 결투_시신들의 매장

이렇게 말하고 영광스런 헤토르가 성문 밖으로
달려 나가자 그의 아우인 알렉산드로스도 따라 나갔다.
이들은 둘 다 마음속으로 싸우기를 열망하고 있었다.

마치 바다 위에서 반들반들 쥘은 전나무 노를 젓기에 지쳐
피로 때문에 사지가 축 늘어져 있을 때

고대하던 뱃사람들에게 신이 순풍을 보내주듯이,

꼭 것처럼 고대하던 트로이아인들에게 두 사람이 나타났다.

이때 둘 중 한 사람은 아테이토오스 왕의 아들

메네스테오스를 죽였다. 이지는 아르네에 살았는데 몽둥이를
휘두르는 아테이토오스와 황소 눈의 켈로메두사 사이에서 태어났다.
한편 헤토르는 날카로운 창으로 에이오네우스의 목을

투구의 청동 차양 밑으로 맞춰 그의 사지를 풀어버렸다.

또 튀키아 전사들의 지휘자이며 힐폴로코스의 아들인

클라우코스는 테시오스의 아들 이피노오스가 날린 전차에
뛰어오르는 순간 격렬한 전투에서 그의 어깨를 맞혔다.

그리하여 그는 전차에서 땅 위로 떨어지며 사지가 풀어졌다.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네는 격렬한 전투에서

이들이 아르고스인들을 도륙하는 것을 보고

올림포스의 꼭대기에서 신성한 일리오스로 훌쩍 뛰어내렸다.

그러자 아폴론이 페르가모스에서 이것을 보고 그녀를 향해

달려갔으니, 트로이아인들의 승리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두 신이 참나무 옆에서 마주치자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 왕이 먼저 말을 걸었다.

“위대한 제우스의 따님이여! 그대는 왜 또 기세 좋게 올림포스에서
내려왔으며, 그대의 큰 마음이 그대를 보낸 까닭이 무엇이었어요?
혹시 다나오스 백성들에게 전쟁의 결정적 승리를 주기 위함인가요?”

그대는 죽여가는 트로이아인들이 조금도 가엾지 않은가 봐요.
하나 그대가 내 말을 들겠다면 이렇게 하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요. 자, 우리 오늘은 전쟁과 결전을 중지합시다!
이 도성을 폐허로 만드는 것이 그대들 불사의 여신들의

마음에 드신다면 저들은 일리오스의 끝장을 볼 때까지
처후에도 일마든지 다시 싸울 수 있을 테니 말어요.”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네가 그에게 대답했다.

“그렇게 합시다. 멀리 쫓는 이여! 나도 그럴 생각으로

올림포스에서 트로이아인들과 아카이오이족 사이로 내려온 것이요.
그런데 자, 그대는 전사들의 전쟁을 어떻게 중지할 생각이시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 왕이 그녀에게 대답했다.

“말을 길들이는 헥토르의 강력한 힘을 분기시키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는 다나오스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과 일대일로
사생결단의 결투를 하려고 도전할 것이고,

그러면 청동 장강이 받아들인 이카이오이족도 화가 나서
한 사람을 분기시켜 고귀한 헥토르와 일대일로 싸우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자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네도 거역하지 않았다.
그 결정이 신들의 마음에 들자, 포리아모스의

사랑하는 아들 헬레노스가 마음속으로 알아차리고

헥토르의 결에 다가서서 그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포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여, 지혜가 제우스 못지않은 이여!

그대는 지금 내 조언을 들겠소? 나 역시 그대의 아우니까요.
다른 트로이아인들과 이카이오이족은 모두 앉히고,

그대 자신은 이카이오이족 중에서 가장 용감한 자와
일대일로 사생결단의 결투를 하려고 도전하시요.

그대는 아득은 죽음과 운명을 맞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나는 영생하는 신들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자 헥토르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한복판으로 나가 창대의 한기운테를 잡고 트로이아인들의 대열을

재지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앉았다.
그러자 이가멤논도 훌륭한 장강이 받아들인 이카이오이족을

앉혔다. 한편 아테네와 은궁의 아폴론은 둘 다
독수리의 모습을 하고 아이기스를 가진 아버지 제우스의

우뚝한 참나무 위에 앉아 전사들을 보며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전사들의 대열들은 춤춤히 불어 앉아

방패와 투구와 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마치 서풍이 막 일기 시작하면 바다 위에 잔물결이

퍼지고 그 밑에서 바다가 거뭇해지듯이, 꼭 것처럼
아카이오이족과 트로이아인들의 대열들이 들판 위에

앉아 있었다. 헥토르가 양군 사이에서 말했다.
“트로이아인들과 훌륭한 장강이 받아들인 이카이오이족이여!

내가 숨속 마음이 명령하는 바를 말하고자 하니 그대들은 내 말을
들으시오. 높은 지리에 앉아 계시는 크로노스의 아드님께서는
우리의 맹약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으니, 그분께서는 우리 양군에게

사악한 생각을 품고 그대들이 훌륭한 탑의 트로이아를 협력하든지 아니면 바다를 여행하는 함선들 앞에서 그대들 자신이 쓰러질 때까지 끝장을 보기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분명하요. 하나 그대들 속에는 전 이카이오이족의 장수들이 모여 있소. 그러니 그중에서 누구든 나와 싸우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이리 나와 그대들 전부를

75

대표하여 이 고귀한 헥토르와 싸우게 하시오. 그리고 내 한 가지만 말하겠으니, 제우스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게 하시오. 만일 그자가 날이 긴 청동으로 나를 죽이면, 무구들은 벗겨 속이 빈 함선들로 가져가되 나 자신은 집으로 돌려보내 트로이아인들과

그들의 아내들이 죽은 나를 화장할 수 있게 하시오.

80

그러나 만일 내가 그자를 죽이고 아폴론이 내게 명성을 주신다면,

나는 그의 무구들을 벗겨 신성한 일리오스로 들고 가서 명궁 아폴론의 신전에 걸어들 것이나

그의 시신은 훌륭한 갑판이 덮인 함선들로 돌려보내 장발의 이카이오이족이 그를 매장하고 그를 위하여 넓은 헬레스폰토스 해안에 봉분을 지어주게 하겠소.

85

그러면 후세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누군가 노가 많이 달린 배를 타고 포도즙빛 바다를 항해하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요.

‘바로 이것이 그 옛날에 용감하게 싸우다가

영광스러운 헥토르의 손에 죽은 그 사람의 무덤이지.’

90

이렇게 누군가 말할 것이고, 그러면 내 명성은 불멸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모두 말없이 잠자코 있었으니, 거칠하자나 부끄럽고 수락하자나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윽고 메넬라오스가 일어서서 그들 사이에서 말했다.

그는 그들을 준엄하게 꾸짖었고 마음속으로 크게 개탄했다.

95

“아아, 허풍선이들이여! 그대들은 이카이오이족 계집들이지 이카이오이족 사내들이 아니요. 지금 다나오스 백성들 중에 아무도 헥토르와 맞서지 않는다면 이는 크나큰 치욕이 될 것이요. 그대들은 모두 간담이 서늘해져서 아무런 명성도 없이 명청하게 여기 앉아 있으니, 앗은 그대로 모두 물과 흙이 되어버릴지이다. 그와 맞서기 위해 내가 몸소 무장할 것이요.

100

승리의 빛줄은 저 위의 불사신들께서 쥐고 계시니까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아름다운 무구들을 입었다.

하지만 메넬라오스여! 만약 이때 이카이오이족의 왕들이 벌떡 일어나 그대를 제지하지 않았던들, 헥토르의 손에서 그대는 인생의 종말을 맞게 되었으리라. 그가 그대보다 훨씬 강하니까.

105

그리고 넓은 지역을 통치하는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은 자신이 메넬라오스의 오른손을 잡고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제우스께서 양육하신 메넬라오스여! 너는 계정신이 아니구나.

110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해서는 안 되지. 괴롭더라도 꼭 참고 단순한 경쟁심에서 너보다 더 강한 전사와 싸우려 들지 마라.

포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는 다른 사람들도 끼리는 티이며

너보다 훨씬 강한 이킬레우스조차도 남자의 영광을

높여주는 싸움터에서 그와 만나기를 두려워했다.

그러니 너는 전우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 앉아 있도록 하라.

115

그에게는 이카이오이족이 다른 사람을 대표로 내보낼 것이다.

내 이르노니, 그가 아무런 겁이 없고 싸움에 물리지 않기로 이 살벌한 전쟁과 무시무시한 결전에서 벗어나면 기꺼이 무릎을 구부리고 쉬고 싶으리라.”

이런 말로 영웅은 아우의 마음을 설득했으니, 그의 충고가

120

도시의 성채에서 나에게 황소의 넓적다리뼈들을 많이도
태워 바쳤지. 그런데 지금 그를 고귀한 이클테우스가
빠른 걸음으로 뒤쫓아 포리아모스의 도성을 들고 있구나.
그러니 여러 신들이여! 그대들은 잘 생각해서 결정하시오.

우리가 그를 죽음에서 구할 것인지 아니면 그가 비록 용감해도
펠레우스의 아들 이클테우스의 손에 쓰러지게 할 것인지 말이요.”

그에게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네가 대답했다.

“번쩍이는 번개를 치시고 검은 구름을 모으시는 아버지시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오래 전에 운명이 정해져 있는
한낱 펠멸의 인간을 가증스런 죽음에서 도로 구하려 하시다니요.
뜻대로 하소서! 하나 우리들 다른 신들은 아무도 찬성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그녀에게 구름을 모으는 제우스가 이런 말로 대답했다.

“안심해라. 트리토게네이아여, 내 딸이여! 내 진심에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며, 또녀에게는 상냥하게 대해주고 싶구나.
그러니 네 마음에 종을 대로 행하고 더 이상 주저하지 마라.”

그가 이런 말로, 그리잖아도 아카부터 그리기를 열망하던
아테네를 격려하자 그녀는 올림포스의 꼭대기에서 훌쩍 뛰어내렸다.
한편 헥토르는 날랜 이클테우스가 쉽 없이 맹렬히 추격했다.

마치 개가 시슴의 새끼를 보금자리에서 몰아내어
신골짜기들과 우거진 계곡들 사이로 추격할 때와도 같이
—시슴이 텅 빈 밀에 웅크리고 숨어도 개는 사슴을
찾아낼 때까지 밤새를 말으며 쉽 없이 돌아다닌다—
꼭 것처럼 헥토르는 준족인 펠레우스의 아들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후시 트로이아인들이 날아다니는 무기들로 위에서
자기를 구해줄까 하여 헥토르가 다르다노스 문을 향해

튼튼하게 지은 탑 밑으로 내달을 때마다

이클테우스는 그를 앞질러 돌판 쪽으로 돌아서게 하며
자신이 언제나 도시 쪽을 질주했다.

마치 꿈속에서 달아나는 자를 추격하러 해도 되지 않듯이
—쫓기는 자는 달아날 수 없고, 쫓는 자는 추격할 수 없다—
꼭 것처럼 이클테우스는 덜러가 잡지 못했고 헥토르는 벗어날 수

못했다. 하나 어찌 헥토르가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 있었겠는가.
만약 이때 아폴론이 마지막이자 끝으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용기를 북돋워주고 무릎을 날래게 해주지 않았더라면?
한편 고귀한 이클테우스는 백성들에게 머리로 신호를 보내

날아다니는 날카로운 무기들을 헥토르에게 던지지 못하게 했으니
다른 자가 그를 맞혀 영광을 얻고 자기는 두 번째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네 번째로 샘물가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가 황금 저울을 펼쳐 들고 그 안에

사람을 길게 낚는 죽음의 운명 두 개를 올려놓으니, 하나는
이클테우스의 것이고 하나는 말을 길들이는 헥토르의 것이었다.

그가 저울대 중간을 잡고 저울질하자 헥토르의 운명의 날이 기울어져
하테스의 집으로 떨어졌다. 그러자 포이보스 아폴론이 그의 걸을

떠났다. 한편 펠레우스의 아들에게는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네가
찾아가 가까이 다가서서 물 흐르듯 거침없이 말했다.

“이제야말로 우리 둘은, 제우스께서 사랑하시는 영광스런
이클테우스여! 싸움에 몰릴 줄 모르는 헥토르를 죽이고

이카이오이 죽을 위해 큰 영광을 함선들 쪽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우리를 벗어날 수 없으리라.

설사 멀리 쏘는 아폴론이 아이기스를 가지신 아버지 제우스

앞에서 뒹굴며 아무리 인간됨을 써도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 그대는 지금 여기 서서 숨을 돌리도록 하라.

나는 저자에게 가서 그대와 맞서 싸우도록 설득할 것이다.”

이렇게 아테네가 말하자 그는 북중했고 호뜻한 마음으로
청동 날이 박힌 물푸레나무 창에 기대섰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걸을 떠나 고귀한 헤토르에게 가니
그 체격과 지칠 줄 모르는 목소리가 데이포보스와 같았다.

가까이 다가서서 그녀는 그를 향해 물 흐르듯 거침없이 말했다.

“형님! 날랜 아킬레우스가 프리아모스의 도성을 들며
빠른 걸음으로 행님을 추격하니 얼마나 괴로우시겠소.

그러니 자, 우리 버티고 서서 그를 막아내도록 합시다!”

그녀에게 투구를 번쩍이는 위대한 헤토르가 대답했다.

“데이포보스여! 나는 헤카베와 프리아모스가 낳은

모든 형제들 중에서 전부터 너를 가장 사랑하였거니와
앞으로는 너를 더욱더 마음속으로 존중할 것이다.

다른 자들은 모두 성벽 안에 있는데 너만은 나를 보자
나를 구해주려고 감히 성벽 밖으로 나왔으니 말이다.”

그에게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네가 말했다.

“형님! 아닌 게 아니라 아버지와 존경스런 어머니와 주위의
전우들은 차례로 내 무릎을 잡으며 나더러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간청했어요. 그만큼 모두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하나 내 가슴속 마음은 쓰러린 슬픔에 찢어질 것만 같았어요.
이제는 전의를 불태우며 단호히 맞서 싸웁시다. 그리고 창을
아끼지 마시다. 그레이트아킬레우스가 우리 두 사람을 죽이고
피 묻은 전리품을 속이 빈 함선들로 가져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225

230

235

240

245

그가 형님의 창에 쓰러지게 될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아테네가 교활하게 앞장섰다.

그들이 마주 달려와 서로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투구를 번쩍이는 위대한 헤토르가 먼저 말을 걸었다.

“펠레우스의 아들이여! 내 잠시 전에는 그대의 공격을 감히
기다리지 못하고 프리아모스의 큰 도성을 세 배퀴나 돌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대를 피해 달아나지 않겠다. 지금 내 마음은
죽이든 아니면 죽든 그대와 맞서라고 명령하고 있다.

자, 이리 와서 신들 앞에서 서약하기로 하자! 신들께서는
모든 합의의 가장 훌륭한 중인이시며 수호자들이시니까.

제우스께서 내게 그대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어
내가 그대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아킬레우스여, 나는 그대에게
모욕을 가하지 않고 그대의 이름만 무구들을 벗긴 다음 그대의
시신은 아카이오이죽에게 돌려줄 것이니 그대도 그렇게 하라.”

그를 노려보며 준족 아킬레우스가 말했다.

“헤토르여, 잊지 못할 자여! 내게 합의에 관해 말하지 마라.

마치 사자와 사람 사이에 맹약이 있을 수 없고

늑대와 새끼 양이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고

시종일관 서로 적의를 품듯이, 꼭 그처럼

나와 그대는 친구가 될 수 없으며 우리 사이에

맹약이란 있을 수 없다. 둘 중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자신의 피로 불굴의 전사 아레스를 배부르게 하기 전에는.

그러니 그대는 온갖 무용(武勇)을 생각하라! 지금이야말로
그대는 창수가 되고 대담한 전사가 되어야 할 때다.

더 이상 피할 길은 없다. 팔라스 아테네가 내 창으로 곧 그대를

250

255

260

265

270

제압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는 이제 그대가 미처 달랠며 창으로
죽인 내 친구들의 모든 고통을 한꺼번에 보상하게 되리라.”

그는 이렇게 말하고 그림자가 긴 창을 번쩍 쳐들고 던졌다.

그러나 영광스런 헤토르가 똑바로 보고 있다가 피해버렸으니
앞을 보며 주저앉았던 것이다. 그래서 창은 그의 위로 날아
땅에 가 꽂혔다. 하지만 팔라스 아테네가 그것을 집어 들어
백성들의 목자인 헤토르 몰래 이킬레우스에게 돌려주었다.
헤토르가 나무랄 데 없는 펠레우스의 아들에게 말했다.

“빚맞혔구나. 신과 같은 아킬레우스여! 그대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내 운명에 관해 제우스에게서 물어 알지 못한 게로구나.
내가 그대를 두려워하여 용기와 투지를 잊도록

햇바닥을 교묘히 놀려 그대는 말로 나를 속였구나.

달아나는 내 등에 그대는 창을 꽂지 못할 것인즉

신이 허락하지거든 달려드는 내 가슴에 똑바로 창을
밀어 넣도록 하라. 이번에는 그대가 내 창동 창을 피해보라.

아아. 그대가 내 창을 온통 그대의 살 속으로 받아들었으면!

그대가 죽고 나면 트로이아인들에게는 전쟁하기가 한결
수월해지리라. 그대는 그들에게 가장 큰 재앙이었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그는 그림자가 긴 창을 번쩍 쳐들고 던져
실수 없이 펠레우스의 아들의 방패 한복판을 맞쳤다.

하지만 창은 방패에서 멀리 튕겨져 나왔다. 헤토르는
자신의 날랜 창이 손에서 헛되어 달아난 것이 분했으니

다른 물푸레나무 창을 갖고 있지 않아 의기소침하게 서 있었다.

그래서 그는 흰 방패의 테이포보스를 큰 소리로 부르며
긴 창을 달라고 했다. 그러나 그자는 근처에 없었다.

그제야 헤토르는 마음속으로 깨닫고 이렇게 말했다.

“아아! 이제야말로 신들께서 나를 죽음으로 부르시는구나.

나는 영웅 테이포보스가 내 곁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는 성벽 안에 있으니 아테네가 나를 속였구나.

이제 사악한 죽음의 가까이 있고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으니
피할 길이 없구나. 그렇다면 이것이 전부다 제우스와

제우스의 멀리 쏘는 아드님의 염원이었던가! 그분들께서는 전에는
나를 가까이 도와주셨건만. 하지만 이제 운명이 나를 따라잡았구나!

하나 내 걸코 싸우지도 않고 명성도 없이 죽고 싶지는 않으니
후세 사람들도 들어서 알게 될 큰일을 하고 나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가 허리에 차고 다니던

크고 튼튼하고 날카로운 칼을 빼 들고는

몸을 웅크리고 덤벼드니, 그 모습은 연약한 새끼 양이나
집 많은 토끼를 잡으려고 검은 구름을 뚫고

들판으로 내려 밟히는 높이 나는 독수리와도 같았다.

꼭 것처럼 헤토르는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며 덤벼들었다.

아킬레우스도 달려드니 그의 마음은 거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그는 정교하게 만든 아름다운 방패로

가슴 앞을 가리고 뿔이 뿔 달린 투구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 주위에서 헤파이스토스가 말총 장식 옆에

쭈뚱히 박아놓은 황금이 너울거렸다.

마치 하늘의 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태백성(太白星)²이
밤의 어둠 속에서 못 별들 사이로 가듯이,

꼭 것처럼 그가 고귀한 헤토르에게 사악한 마음을 품고

오른손으로 휘두르는 날카로운 창에서 광채가 번쩍였다.

아킬레우스는 가장 적당한 곳을 찾아 그의 고운 살갓을 살폈다.

그런데 그의 살갓의 다른 부분은 그가 강력한 파트로클로스를 죽였을 때 베어온 아름다운 청동 무구들로 덮여 있었다.

그러나 쇠뿔이 어깨에서 나와 목을 감싸고 있는 부분, 즉 무구명만은 드러나 있었으니 그곳은 치명적인 급소다.

바로 그곳으로 고귀한 아킬레우스가 덤벼들며 창을 밀어 넣자 그의 부드러운 목을 창끝이 곧장 뚫고 나갔다.

하나 청동으로 무거워진 물푸레나무가 그의 숨통을 끊지 못해 헥토르는 아직은 적에게 말대꾸를 할 수 있었다.

그는 먼저 속에 쓰러졌고 고귀한 아킬레우스는 환성을 올렸다.

“헥토르여! 그대는 파트로클로스의 무구들을 벗겼을 때

무사히러라 믿고, 멀리 떨어져 있는 나는 염두에도 없었치지.

어리석도다! 멀리 속이 빈 함선들 옆에는 그대보다 훨씬 강한,

그의 복수자가 뒤에 남아 있었다. 그대의 무릎을 풀어버린

이 내가 말이다. 그대는 개 때와 새 때가 보기 좋하게

썰게 될 것이나 그는 아카이오이족이 후히 장사지내주리라.”

그에게 투구를 번쩍이는 헥토르가 기진맥진하며 말했다.

“내 그대의 목숨과 무릎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애원하건대,

나를 아카이오이족의 함선들 옆에서 개들이 뜯어먹게

내버려두지 말고, 나의 아버지와 준경스런 어머니께서

그대에게 선물로 주게 될 청동과 황금을 넉넉히 받고는

내 시신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트로이아인들과

그들의 아내들이 죽은 나를 화장할 수 있게 해주구려.”

그를 노려보며 준족 아킬레우스가 말했다.

“이 개지식이! 무릎이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애원하지 마라.

그대의 소행을 생각하면 너무나 분하고 패썹해서

내 손수 그대의 살을 저며 날로 먹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나 그대의 머리에서 개를 쫓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실사 그들이 열 곱절 또는 스무 곱절이나 되는 물값을 가져와
여기서 달아주고 거기다 더 많은 것을 약속한다 하더라도

아니, 실사 다르다노스의 후예인 프리모스가 그대의 몸무게만한

황금을 달아주도록 명령한다 하더라도 그대의 준경스런 어머니는
결코 몸소 낳은 자식인 그대를 침상에 눕고 슬퍼하지 못할 것이며

개 때와 새 때가 그대를 남김없이 뜯어먹게 되리라!”

그에게 투구를 번쩍이는 헥토르가 죽어가며 말했다.

“내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고, 또 보고 있다. 그대는 결코

내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다. 그대의 가슴속 마음은 무쇠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 파리스와 포이보스 아폴론이

그대의 용기에도 불구하고 스키테이이 문에서 그대를 죽이는 날

나 때문에 그대에게 신들의 노여움이 내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죽음의 종말이 그를 덮쳤고,

그의 혼백은 남자의 힘과 젊음을 뒤로하고 자신의 운명을

통곡하며 그의 사지를 떠나 하테스의 집으로 날아갔다.

이미 숨을 거둔 그에게 고귀한 아킬레우스가 말했다.

“죽이라! 내 죽음의 운명은 제우스와 다른 불사신들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때에 언제나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시신에서 청동 창을 뽑아

옆에 놓고 어깨에서 피투성이가 된 무구들을 벗기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른 아카이오이족의 아들들도 물려들었다.

그들은 헥토르의 체격과 당당한 모습을 보고 감탄했다.

하지만 그의 옆에 서서 그를 찌르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었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더러 있었다.

“아, 이제 헥토르는 티오르는 불로 함선들을
불시를 때모다는 다루기가 한결 부드럽구나!”

이렇게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에 서서 그를 찔렀다.

375

그러나 준족의 고귀한 아퀼테우스는 그의 무장을 벗긴 다음
아카이오이족 사이에 서서 폴 흐르듯 거침없이 말했다.

“친구들이여, 아르고스인들의 지휘자들 및 보호자들이여!

이제 신께서 다른 자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해악을 끼친 이지를 재입하게 해주셨으니,

380

우리는 무구들로 무장한 채 도시를 두루 시험하여

이자가 쓰러졌으니 그들이 성채를 버릴 것인지 아니면

헥토르가 없더라도 계속해서 버티기를 열망하는지

트로이아인들의 의도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하나 내 마음은 무엇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

385

함선들 옆에는 파트로클로스가 아직 문장(間諜)도 받지 못하고
묻히지도 못한 채 누워 있지 않은가! 내가 산 사람들과 함께하고
내 무릎이 움직이는 동안에는 내 결코 그를 잊지 못할 것이요.

하데스의 집에서는 죽은 사람들을 잊어버린다니지만

거기서도 나는 사랑하는 전우를 기억할 것이요.

390

자이제, 아카이오이족의 젊은이들이여! 승전기를 부르며
이자를 테리고 속이 빈 함선들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우리는 큰 영광을 얻었소. 온 도성의 트로이아인들이
신처럼 떠만들던 고귀한 헥토르를 죽였으니 말이요.”

이렇게 말하고 그는 고귀한 헥토르에게 치욕적인 일을 생각해냈다.

395

그는 두 발의 뒤쪽 힘줄을 뒤꿈치에서 복사뼈까지 뚫고
그 사이로 소가죽 끈을 꿰어서 헥토르를 전차에 매달아
머리가 뒤에서 끌려오도록 해놓았다. 그런 다음 그는

이름난 무구들을 전차 위에 올려놓고 자신도 올라 채찍을
휘두르며 말들을 모니 말들도 마다않고 나는 듯이 달렸다.

400

헥토르가 끌려가자 그 주위에서는 먼지가 일고, 그의 검푸른
머리털은 양쪽으로 흘러내려 전에는 그토록 곱던 그의 머리가
온통 먼지투성이가 되었으니, 제우스가 이제 그를 적군에게
내주어 그 자신의 고향 땅에서 그를 모욕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헥토르의 머리는 온통 먼지투성이가 되었다.

405

그의 어머니는 그러한 이들을 보자 머리털을 쥐어뜯고
번쩍이는 먼시포를 멀리 벗어던지며 큰 소리로 통곡했다.

그의 아버지도 슬피 울었고 온 도성의 백성들도

그들을 둘러싸고 소리를 지르거나 울었다.

그 광경은 흡사 우뚝 솟은 일리오스가

410

꼭대기에서부터 온통 화염에 싸여 있는 것만 같았다.

백성들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 다르다노스 문 밖으로

나가려는 노인을 가까스로 제지했다.

노인은 더러운 먼지 위에 뒹굴며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이들에게 애원했다.

415

“그만두시오, 친구들이여! 그때들은 내가 염려되었지만 나 혼자
도시에서 나가 아카이오이족의 함선들을 찾아가도록 내버려두시오.

혹시 그가 동년배들 앞에서 수치를 느끼고 노인을 불쌍히 여길는지
내 저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흉악무도한 자에게 애원해볼 것이요.

그에게도 나처럼 늙은 아버지가 있지 않은가. 그를 놓아 길러

420

트로이아인들에게 재앙이 되게 한 펠레우스 말이요.

그는 누구보다도 나에게 가장 많은 슬픔을 가져다주었소.

그 많은 자식들을 꽃다운 나이에 죽여버렸으니 말이요.

하나 그 애들 때문에 마음이 괴롭기는 하지만 나는 그 애들 모두를
합친 것보다 이 애 하나를 더 슬퍼하오. 헥토르! 그 애에 대한

애끓는 슬픔이 결국 나를 하데스의 집으로 데려가고 말 것이요.

차라리 그 애가 내 품안에서 죽었더라면! 그랬더라면 그 애를 양은
불행한 이미지와 나는 실컷 울며 슬퍼할 수나 있었을 텐데!”

그가 이렇게 울면서 말하자 시민들도 따라서 비탄했다.

트로이아의 여인들 사이에서는 헤키베가 먼저 통곡하기 시작했다.

“내 아들이, 가련한 내 신세여! 네가 죽었는데 내가 슬픔 속에
살아 무엇하리? 너는 발뚱으로 온 도성 안에서 내 자랑거리였고,

남녀불문하고 도시 안의 모든 트로이아인들에게
구원이었지. 그리고 그들은 너를 신처럼 맞았지.

살아 있는 동안 너는 그들에게 큰 영광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죽음과 운명이 너를 따라잡았구나.”

이렇게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하나 헥토르의 아내는 아직

이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 믿음직한 사자(使者)가 와서

그녀의 남편이 성문 밖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지붕 높은 집의 안방에서 두 겹으로 된

자줏빛 천을 찢으며 그 안에 여러 가지 꽃무늬를 수놓고 있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머리를 곱게 빗은 집 안의 하녀들을 불러

헥토르가 싸움터에서 돌아오면 더운물에 목욕할 수 있게

불 위에 큰 세발술을 얹어놓도록 일렀다.

아리석도다! 목욕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빛나는 눈의 아테네가

아킬레우스의 손으로 그를 이미 재압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으니!

그러나 성탑에서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그녀는 사지가 떨려 복이 손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그녀는 머리를 곱게 빗은 집 안의 하녀들 사이에서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 하니 너희들 들은 나를 따라오라.

방금 존경하는 시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나니 가슴속의 심장이

입에까지 뛰어오르고, 아래쪽 무릎이 굳어지는구나.

프리아모스의 자식들에게 무슨 재앙이 터졌음이 분명해.

아이, 재발 그런 말은 내 귀에 들리지 말았으면!

대담한 헥토르만을 고귀한 아킬레우스가 도시에서 차단한 다음
들관으로 추격하여 그이를 사로잡고 있던 위험한 자존심을

끝장내주지 않았을까 심히 두렵구나. 그이는 결코 전사들의

무리 속에 머물지 않고 그들 앞으로 멀리 뛰어나갔으며

용기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그녀가 가슴을 두근거리며 미친 여자처럼

방에서 뛰어나가자 하녀들도 그녀를 따라갔다.

그들이 성탑과 사람들의 무리 사이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성벽 위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가 도시 앞에서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

날랜 말들이 무장하게도 그를 이키이오이족의 속이 빈 합선들로

끌어가고 있었다. 그러자 칠흙 같은 어둠이 그녀의 두 눈을

덮었고, 그녀는 뒤로 넘어지며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에서 이마며며 머릿수건이며 곱게 꼰 머머

면서포 같은 장식품들이 멀리 떨어져 나갔다.

그 면사포는 투구를 번쩍이는 헥토르가 수없이 많은

구혼 선물을 주고 에에터온의 집에서 그녀를 데려오던 날
황금의 아프로디테가 그녀에게 준 선물이었다.

그리고 그녀 주위로 시누이들과 동서들이 몰려와

질망한 나머지 죽게 된 그녀를 그들 사이에서 부족했다.

이윽고 숨을 쉴 수 있게 되고 가슴속에 정신이 돌아오자

그녀는 호느끼 울며 트로이아 여인들 사이에서 말했다.

“헥토르여, 불운한 내 신세여! 우리 두 사람은 같은 운명을
티고났구려. 당신은 트로이아에 있는 포리아모스의 집에서

그리고 나는 숲이 우거진 플라코스 산 밑 테베이에 있는

에에터온의 집에서. 어려서부터 나를 길러주신 그분께서는 전쟁
불운한 자식의 불운한 아버지세요. 차라리 나를 남지 않으셨더라면!

이제 당신은 땅속 깊숙한 곳인 하테스의 집으로 떠나가시고

나만 홀로 쓰러린 슬픔 속에 파부의 몸으로 당신의 집에

남겨놓으시는군요. 그리고 불행한 우리 두 사람이 낳은 아들은

아직 절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헥토르! 당신이 죽었으니

그 애에게 구원이 되지 못할 것이며 그 애도 당신에게 도움이

못 될 거예요. 설사 그 애가 이카이오이족의 눈물겨운 전쟁에서

벗어난다 해도 언제나 노고와 근심이 그 애를 뒤따라 다닐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애의 농토들을 차지해버릴 테니 말예요.

고아(孤兒)의 날은 어린아이를 친구들에게서 갈라놓으며

그의 머리는 언제나 수그러지고 그의 불은 눈물에 젖어 있지요.

공한 나머지 아이는 아버지의 친구들을 찾아가

이 사람의 외투 또는 저 사람의 뒤통을 잡겠지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있어 잠시 자기 간을 입술에 대주더라도

그의 입술이나 축여주지 그의 입 안을 축여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부모가 모두 살아 있는 어떤 아이가 그를 주먹으로
때리고 육살을 퍼부으며 잔치자리에서 밀어내겠지요.

‘너는 어서 꺼져! 네 아버지는 우리 잔치에 오지 않았으니!’

그러면 그 아이는 울면서 파부가 된 어머니에게 돌아가겠지요.

우리 이스튀아낙스 말예요. 그 애도 전에는

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꿀수와 살진 양고기만 먹곤 했지요.

그리고 줄음이 와서 어린이가 놀이를 그만두게 되면

여러 가지 유쾌한 일로 마음을 싹틔울 것 같게 한 뒤

침대 위에서 부모의 품안에서 포근히 자곤 했지요.

하지만 이제 아버지를 여의었으니 고생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이스튀아낙스 말예요. 그 애를 트로이아인들은 그렇게 불렀지요.

당신 혼자서 그들의 문들과 긴 성벽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하나 이세는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진 무리처럼 원 함선들 앞에서

당신을 개들이 배를 채우고 나면 꿈틀거리는 구더기들이 뜯어먹게

되겠지요. 별거벗은 당신을. 하지만 여기 당신의 궁전에는 옷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여인들의 손으로 잔 곱고 우아한 옷들이.

그러니 나는 그 옷들을 모두 타오르는 불에 태워버릴래요.

당신이 그 안에 놓지 못하니 무슨 소용 있겠어요.

그리는 편이 트로이아의 남녀들 앞에서 당신에게 명예가 되겠지요.”

그녀가 울면서 이렇게 말하자 다른 여인들도 따라서 비탄했다.

그를 청동으로 쥔것건만 그가 맞은 상처도 모두 아물었소.
축복 받은 신들께서 그대의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기에
그가 죽은 뒤에도 그만큼 잘 보살펴주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하자 노인은 기뻐서 이런 말로 대답했다.

“내 아들이여! 불사신들께 적절한 선물을 바치는 것은 역시
좋은 일이군요. 내 자식도—그가 정말 내 자식이었다면—
우리 궁전에서 올림포스에 사시는 신들을 잊은 적이 없었소.
그래서 그분들께서 그가 죽은 뒤에도 기억하시는 것이요.

그러니 자, 그대는 나에게서 이 아름다운 술잔을 받고

내가 펠레우스의 아들의 막사에 도착할 때까지

나를 보호해주고 신들의 도움으로 나를 호송해주시구려!”

이번에는 신들의 사자인 아르고스의 살해자가 그에게 말했다.

“노인장! 내가 더 젊다고 해서 그대는 나를 때 보시는군요.

그대는 아킬레우스 몰래 선물을 받으려고 하지만 나를 실패하지
못할 것이요. 나는 그분을 속이는 것이 두렵고 또 진심으로
부끄럽게 여기고 있소. 나중에 내게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요.
하지만 호송원으로서 나는 달랜 배를 타든 아니면 걸어서든
유명한 아르고스까지라도 그대를 정중히 모시겠소. 아무도 감히
그대의 호송원을 깔보고 그대에게 덤벼들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구원자는 말들 뒤 마차 위에
뛰어올라 지척 없이 채찍과 고삐를 손에 쥐더니
말들과 노새들에게 고상한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들이 함선들을 지키는 탑들과 호에 이르렀을 때
피수병들은 막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서 신들의 사자인 아르고스의 살해자는 그를

모두에게 잠을 쏜 뒤 빗장을 벗겨 문을 열고

포리아모스와 짐수레 위의 빼어난 선물들을 안으로 인도했다.
이윽고 그들은 펠레우스의 아들의 막사에 당도했다.

지붕이 높다란 이 막사는 푸르미도네스족이 그들의 왕을 위해
전나무를 베어와 지은 것으로 지붕은 풀밭에서 모아 온

솜털처럼 부드러운 갈대로 이었다. 그들은 또 그들의 왕을 위해
그 둘레에 말뚝을 촘촘히 박아 넓은 마당을 만들어놓았다.

문에는 단 하나의 빗장이 걸려 있었는데

이 빗장은 새 명의 아카이오이족이 걸곤 했으며

또 이 거대한 빗장은 다른 사람들은 셋이서

벗기곤 했으나 아킬레우스는 혼자서도 걸었다.

그런데 이때는 구원자 헤르메스가 노인을 위해 문을 열고
준족인 펠레우스의 아들에게 바칠 이름난 선물들을 안으로
들인 다음 마차에서 땅 위로 내려와서 말했다.

“노인장! 그대와 같이 온 나는 불사신 헤르메스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그대를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도로 돌아갈 것이며 아킬레우스의 면전에는
나타나지 않겠다. 불사신으로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필멸의 인간들에게 호의를 보이다가는 노여움을 살 테니까.

그대는 안으로 들어가 펠레우스의 아들의 무릎을 잡고
그의 아버지와 머릿결 고운 그의 어머니와 그의 자식의
이름으로 애원해보라. 그러면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헤르메스는 높은 올림포스로 돌아갔다.
한편 포리아모스는 마차에서 땅 위로 뛰어내려
말들과 노새들을 붙들고 있도록 이디aios를 뒤에 남겨두고

제우스의 사랑을 받는 아킬레우스가 늘 앉아 있곤 하면

그의 처소로 곧장 나아갔다. 그 안에서 노인은 그를 발견했고

그의 전우들은 좀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다. 영웅 아우토메돈과

이레스의 후예인 알키모스, 이렇게 두 사람만이

그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시는 일을

이제 막 끝냈고, 그의 앞에는 아직도 식탁이 놓여 있었다.

위대한 포리아모스는 그를 몰래 안으로 들어가서는 가까이

다가가 두 손으로 아킬레우스의 무릎을 잡고 자기 아들들을

수없이 죽인, 남자를 죽이는 그 무시무시한 두 손에 입 맞추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무서운 미망(迷妄)에 사로잡혀 고향에서

사람을 죽이고 이방의 어떤 부잣집으로 피신하게 되면

그를 본 사람은 누구나 감쪽 놀라듯이, 꼭 것처럼

아킬레우스는 신과 같은 포리아모스를 보고 감쪽 놀랐고

다른 사람들도 놀라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다.

그에게 포리아모스는 이런 말로 애원했다.

“신과 같은 아킬레우스여, 그대의 아버지를 생각하시오!

나와 동년배이며 슬픈 노령의 문턱에 서 있는 그대의 아버지를.

혹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그분을 괴롭히더라도 그분을

파멸과 재앙에서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요.

그래도 그대가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날이면 날마다 사랑하는 아들이 트로이아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을 것이요.

하나 나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요. 드네프은 트로이아에서 나는

가장 훌륭한 아들들을 낳았건만 그중 한 명도 안 남았으니

말이오. 이카이오이족의 아들이 왔을 때 내게는 아들이

475

480

485

490

495

원 명이나 있었소. 그중 열아홉 명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나머지는 소실(小室)들이 나를 위해 집 안에서 넣어주었소.

한테 그들 대부분의 무릎을 사나운 이레스가 끌어버렸소.

그리고 혼자 남아서 도성과 백성들을 지키던 헥토르도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얼마 전에 그대의 손에 죽었소.

그래서 나는 그 때문에, 그대에게서 그 예를 돌려받고자

헤아릴 수 없는 몸값을 가지고 지금 이카이오이족의 함선들을

찾아온 것이요. 아킬레우스여! 신을 두려워하고 그대의 아버지를

생각하여 나를 동정하시오. 나는 그분보다 더 동정 받아 마땅하오.

나는 세상의 어떤 사람도 치마 못한 짓을 하고 있지 않소!

내 자식들을 죽인 사람의 얼굴에 손을 내밀고 있으니 말이오.”³

이런 말로 노인은 그의 가슴속에 아버지를 위해 통곡하고픈 욕망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그는 노인의 손을 잡고 살며시 한쪽으로

밀어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생각에 잠겨 포리아모스는

아킬레우스의 발 앞에 쓰러져 남자를 죽이는 헥토르를 위해 끼이끼이

울었고,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때로는 파트로클로스를

위해 울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울음소리가 온 집 안에 가득 찼다.

그러나 마침내 고귀한 아킬레우스는 실컷 울어

울고 싶은 욕망이 그의 마음과 사지에서 떠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노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더니

노인의 흰 머리와 흰 수염을 불쌍히 여겨

그를 향해 이렇게 묻 호르듯 거침없이 말했다.

“이여, 불쌍하신 분! 그대는 마음속으로 많은 불행을 참았소이다.

그대의 용감한 아들들을 수없이 죽인 사람의 눈앞으로

흔저서 감히 이카이오이족의 함선들을 찾아오시다니!

500

505

510

515

520

그대의 심장은 진정 무쇠로 만들어진 모양이구려.

자, 아무튼 의자에 앉으시오! 아무리 피로더라도

우리의 슬픔은 마음속에 누워 있도록 내버려둡시다.

세늘한 통곡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신들은 비참한 인간들의 운명을 정해 놓으셨소.

피로위하며 살아가도록 말이요. 하나 그분들 자신은 슬픔을 모르지요.

제우스의 궁전 마룻마닥에는 두 개의 항아리가 놓여 있는데

하나는 나쁜 선물이고, 다른 하나는 좋은 선물이 가득 들어 있지요.

천둥을 좋아하시는 제우스께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주시는 사람은

때로는 고통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하지요.

하나 그분께서 나쁜 것만 주시는 자는 멸시의 대상이 되지요.

그런 사람은 신들에게서도 인간들에게서도 존경 받지 못하고

심한 궁핍에 쫓겨 신성한 대지 위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그처럼 펠레우스에게도 신들은 그분께서 나실 때부터 빼어난

선물들을 주셨지요. 그분은 행운과 재물에서 모든 사람을

능가했으며, 또 펠레우스의 왕이셨으니까요.

게다가 신들은 펠멸의 인간에 불과한 그분께 여신을 아내로

주셨지요. 하지만 그분께도 신은 나쁜 것을 주셨지요.

그분의 궁전에는 왕위를 이을 후손들이 태어나지 않았고

그분의 외아들인 나는 요절할 운명을 타고났으니 말이요.

그리고 늙어가시는 그분을 나는 돌보아드리지도 못해요.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여기 트로이아에 앉아 나는 그대와 그대의 자식들을

피로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노인장! 그대도 전에는 행복했었다고

들었소. 남쪽으로는 마카르⁴의 영지(領地)인 테스보스와 경계를 이루고

북쪽으로는 포뤼기아와 끝없는 헬레스폰토스와 경계를 이루는 넓은

땅에서, 노인장! 그대는 재물과 자식에서 모든 사람을 능가했다고

하더군요. 한테 하늘의 신들이 이와 같은 재앙을 그대에게 내리시어

그대의 도성 주위에서는 전투와 살육이 그칠 날이 없구려.

꼭 참으시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끝없이 슬퍼하지 마시오. 아들을 위해

슬퍼한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며 그대가 그들 도로

살리지도 못할 것이요. 그전에 그대는 다른 불행을 당하게 될 것이요.”

그러자 그에게 신과 같은 포리아모스 노인이 대답했다.

“제우스의 양자여! 헥토르가 돌려주는 이 없이 막사들 사이에

누워 있는 한 나더러 의자에 앉으라고 하지 마시오.

그대는 되도록 빨리 그 애를 내주시어 내 눈으로 그 애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져온 많은 몸값을 받으시오.

그리고 그대는 아까 나를 살려주어 햇빛을 보게 해주셨으니

이 물건들을 즐기시다가 그대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시기 바라요.”

그를 노려보며 준족 이킬레우스가 말했다.

“노인장! 이제 더 이상 나를 화나게 하지 마시오. 그러잖아도

나는 헥토르를 그대에게 내줄 생각이었소. 바다 노인의 따님이시며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께서 제우스의 사자로 다녀가셨기 때문이요.

그리고 포리아모스여! 이카이오이족의 탈랜 함선들로 어떤 신이

그대를 인도했다는 것도 나는 모르지 않고 마음속으로 알고 있소.

펠멸의 인간이라면 아무리 젊어도 감히 진영 인으로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요. 파수병들의 눈을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우리 문들의 빗장도 쉽게 벗기지는 못할 테니 말이요.

그러니 지금 피로운 내 마음을 더 이상 자극하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노인장! 그대가 탄원자라 하더라도 막사에서 내가

그대를 그냥두지 않고 제우스의 명령을 어기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말하자 노인은 겁이 나서 그의 말에 복종했다.

한편 펠레우스의 아들은 사자처럼 막시의 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러나 그는 혼자가 아니라 그의 두 시종 영웅 아우토메돈과 알키모스가 그의 동행했는데 이들은 아킬레우스가

전우들 중에서도 죽은 펠트로클로스 다음으로 가장 존중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말들과 노새들을 망에에서 풀고 나서

노인의 목소리가 큰 전령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의자에 앉히더니 반들반들 깎은 짐수레에서

헤아릴 수 없는 헥토르의 몸값을 들어 내렸다.

하나 아킬레우스가 시신을 써서 짐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들은 두 벌의 겹옷과 잘 찬 윗옷 하나는 그대로 남겨두었다.

이어서 그가 하녀들을 불러내 포리아모스가 아들을 보지 못하도록

시신을 한쪽으로 들고 가서 씻고 기름을 발라주라고 명령했다.

그렇지 않으면 노인이 자식을 보고 상심한 나머지 노여움을

억제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아킬레우스도 마음이 흥분되어

그를 죽이고 제우스의 명령을 이기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하녀들이 시신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나서

훌륭한 겹옷과 윗옷으로 시신을 덮자

아킬레우스가 손수 시신을 들어 침상에 눕었고

그의 전우들은 시신을 반들반들 깎은 짐수레에 실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소리 내어 울며 사랑하는 전우의 이물을 발랐다.

“펠트로클로스여! 하테스의 집에서라도 내가 고귀한 헥토르를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내주었다고 듣거든 나를 원망 마시오.

그는 욕되지 않을 만큼 몸값을 바쳤으니까요.

그대에게도 나는 그중에서 적당한 몫을 나눠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고귀한 아킬레우스는 도로 막사로 들어가
맞은편 벽 기에 놓여 있는, 그가 방금 일어섰던

교묘하게 만든 의자에 앉으며 포리아모스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노인장! 이제 그대의 아들은 그대의 소원대로 풀려나

침상에 누워 있으니 날이 밝아 그를 데려갈 때 직접

보시게 될 것이요. 그러니 지금은 저녁 먹을 생각이니 합시다.

고운 머리의 니오베⁵도 먹을 생각은 했으니 말이요.

그녀는 열두 자녀를 자기 궁전에서 한꺼번에 잃었는데,

그중 여섯은 딸이고 다른 여섯은 한창때의 아들이었소.

아들들은 니오베에게 화가 난 아폴론이 은궁으로 쏘아 죽이고

딸들은 활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죽였던 것이요. 그 까닭은

니오베가 불이 예쁜 레토와 견주려 했기 때문인데, 여신은

들만 낳았는데 자기는 많은 자녀를 낳았다고 자랑했던 것이요.

그래서 그분들은 단 둘이지만 그녀의 자녀들을 모두 죽였지요.

그들은 아흐레 동안 피투성이가 되어 누워 있었고 그들을 묻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소. 크로노스의 아드님께서 백성들을 돌로

변하게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열흘째 되던 날 하늘의 신들이 그들을

묻어주었고 그녀는 눈물을 흘려 지치가 먹을 생각을 했던 것이요.

그리고 지금은 아펠로오스 강변에서 춤추는 요정들의 잡자리가

있다고들 하는 시필로스의 인척 드문 산속 암벽들 사이

어딘기에서 그녀는 돌이 되었는대도

아직도 신들이 내리신 고통을 되새기고 있지요.”⁶

그러나 자, 고귀한 노인장! 우리도 먹을 생각을 합시다.

나중에 그대의 사랑하는 아들을 일리오스로 데려갈 때 그를 위해

울 수 있을 것이요. 그를 위해서는 눈물을 많이 흘릴 만도 하지요.”

이렇게 말하고 날랜 아킬레우스는 벌써 일어나 은빛 수양
한 마리를 잡았다. 그러자 그의 전우들이 꺾철을 벗기고
격식대로 잘 손질하여, 살코기를 숨세 있게 썰어 꼬챙이에
 꿰어서는 정성 들여 구운 뒤 모두 불에서 내렸다.

이우토메돈이 빵을 가져와서 예쁜 바구니에 담아

식탁 위에 내놓고 아킬레우스가 고기를 나눠주자

그들은 앞에 차려 놓은 맛있는 음식에 손을 내밀었다.

그러하여 먹고 마시는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다르다노스의 후예인 포리아모스는 아킬레우스를 보고 감탄했다.

그가 어찌나 크고 아름다운지 보기에 신과 같았다.

한편 아킬레우스도 다르다노스의 후예인 포리아모스의

고상한 용모와 언변을 보고 듣고 감탄해 미지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실컷 쳐다보았을 때

신과 같은 노인 포리아모스가 먼저 말을 걸었다.

“게우스의 양자여! 이제는 되도록 빨리 나를 잠자리에 들게

해주시오. 우리가 누워서 달콤한 잠을 실컷 즐길 수 있도록

말이오. 내 지식이 그대의 손에 목숨을 잃은 뒤로

나는 여태까지 눈썹 밑의 눈을 한 번도 붙이지 못하고

안뜰 울터리 안의 진흙 위를 뒹굴면서 쉴 새 없이

탄식하고 수많은 고통을 되새기곤 했으니까요.

이제 비로스 빵을 맛보고 반짝이는 포도주를 목구멍으로

넘겼을 뿐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맛보지 않았소.”

이렇게 말하자 아킬레우스는 전우들과 하녀들에게 명하여

주령에 침상을 갖다놓고는 그 안에 아름다운 자못빛

담요를 깔고 그 위에 침대보를 펴고 다시 그 위에

몸을 덮을 수 있도록 두툽한 외투를 펴게 했다.

그래서 하녀들이 손에 횃불을 들고 방에서 나가

급히 서둘러 잠자리 들을 퍼놓았다.

그에게 준족 아킬레우스가 농담 삼아 말했다.

“자, 노인장! 밖에서 주무시도록 하시오.

이키이오이족의 참모 중에 누가 이리 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들은 관례에 따라 늘 내 막사에 와서 나와 의논하곤 하지요.

그중에 누군가 빨리 지나가는 어두운 밤에 그대를 보게 되면

죽시 백성들의 목자인 아가멤논에게 일러바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혹시 사신의 인도가 지연될지도 모르요.

자, 그대는 이 점에 대해 내게 솔직히 말씀해주시오!

고귀한 헤토르의 장태를 치르시면 며칠이나 걸리겠소?

그동안은 나 자신도 쉴 것이며 백성들도 불들어두겠소.”

그러자 그에게 신과 같은 포리아모스 노인이 대답했다.

“그대가 진실로 고귀한 헤토르의 장태를 마치게 해주실

생각이라면, 아킬레우스여!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소.

이시디사피 우리는 도성 안에 갇혀 있으며 산에서 나무를 헤오려면

멀리 나가야 하오. 게다가 트로이아인들은 잔뜩 겁을 먹고 있소.

이후테 동안 우리는 집에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다가

열흘째 되는 날 그를 땅에 묻고 백성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열하루째 되는 날 그를 위해 무덤을 만들어줄 것인즉,

일이 틀레 되는 날 꼭 필요하다면 우리는 싸울 수 있을 것이요.”

이번에는 준족의 고귀한 아킬레우스가 그에게 말했다.

“포리아모스 노인여! 그 모든 것이 그대의 명령대로 될 것이요.

그대가 요구한 그 기간에는 내가 전쟁을 제지할 테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그는 노인의 오른손 손목을 꼭 쥐어
그가 마음속으로 조금도 겁내지 않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마음속에 영리한 생각을 품고 있는 전령과
프리아모스는 그의 집의 앞쪽 방에서 잤고

아킬레우스는 툭툭하게 지은 막사의 맨 안쪽에서 잤는데
그의 옆에는 불이 에쁜 브리세이스가 누워 있었다.

다른 신들과 전차를 타고 싸우는 전사들은 모두
달콤한 잠에 제압되어 밤새도록 잠을 잤다.

하지만 구원자 헤르메스는 어떻게 하면 프리아모스 왕을
건강한 파수병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함선들 밖으로

인도할 수 있을지 마음속으로 궁리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윽고 그는 프리아모스의 머리맡에 서서 그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노인장! 아킬레우스가 그대를 살려주었다고 해서 아직도 적군들
사이에서 자고 있는 걸 보니 그대는 재앙은 염두에도 없는 모양이구려.

그대는 지금 많은 것을 주고 사랑하는 아들을 돌려받았노라.

하지만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과 모든 아카이이오이족이

그대를 알아차리는 날에는 뒤에 두고 온 그대의 자식들이

그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 세 고품철의 몸값을 치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자 노인은 겁이 나서 전령을 깨웠다.

그들을 위해 헤르메스가 말들과 노새들에게 멍애를 얹고

손수 활아 날래게 진영을 빠져나가니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이 불사의 제우스가 낳은 소용돌이치는

아름다운 코산토스 강의 여울에 이르렀을 때

헤르메스는 높은 올림포스를 향해 떠나가고

사프란색 옷을 입은 새벽이 온 대지 위에 퍼졌다.

그들은 울며불며 도성을 향해 말들을 몰았고, 노새들은
시신을 싣고 갔다. 하지만 남자들은 에쁜 허리띠를 맨

여인이든 먼저 그들을 알아본 사람은 달리 아무도 없었고
황금의 이프로디테와도 같은 컷산드라가 페르가모스에

올라가 있다가 마차 위에 서 있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도성 안을 향해 외치는 사람인 전령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또 시신이 노새 뒤쪽 침상에 누워 있는 것도 보았다.

그래서 그녀는 흐느끼며 온 도성 안을 향해 크게 외쳤다.

“트로이아의 남녀들이여, 이리 와서 헥토르를 보시오!

그가 생전에 싸움터에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 적이 있다면.

그는 도시와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말하자 남녀를 불문하고 도시 안에 남아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침을 수 없는 슬픔이 그들 모두를 덮쳤기 때문이다.

성문 가까이서 그들은 시신을 싣고 오던 자와 마주쳤다.

먼저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존경스런 어머니가 잘 구르는 짐수레로

달려가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머리털을 섞어뜯으며

에도했다. 그러자 무리들도 울면서 그들을 에워쌌다.

그리하여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운종일 성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헥토르를 애도했을 것이나

노인이 마차에서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노새들이 지나갈 수 있게 길을 비키시오. 나중에

집에 설어다 놓은 뒤에 실컷 울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갈라서서며 수레를 위해 길을 비켜주었다.

그래서 일행은 이름난 집 안으로 그를 싣고 들어가

구멍이 많이 뚫린 침상에 누고 그 옆에 민가(輓歌)를

선창할 가수들을 배치했다. 이들이 애절한 노래를 부르며
만기를 선창하자 여인들이 거기에 맞춰 슬피 울었다.

그러고 여인들 중에서는 흰 팔의 안드로마케가 남자를 죽이는
헤토르의 머리를 두 손으로 붙들고 호곡을 선창했다.

“남군아! 당신은 아직 젊은데 목숨을 버리고 나를 당신 집에
파부로 남겨놓으시는군요. 불운한 당신과 나 사이에 태어난 자식은
이제 이런이기에 불과해요. 나는 그 애가 자라서 어른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전에 이 도시가 완전히 파괴될 테니까요.”

성벽을 지켜주고 소중한 아내들과 찼없는 아이들을
보호해주면 이 도시의 수호자인 당신이 죽었으니 말예요.

그들은 머지않아 속이 번 함성들에 실려 갈 것이고,

나도 그들과 함께 가겠지요. 그리고 내 아들이! 너는 나를 따라가
그곳에서 어느 기혹한 주인 밑에서 고생을 하며 치욕스런 노역에
종사하게 되겠지. 아니면 어떤 아카이오이족이 내 팔을 잡고
성벽에서 내던져 비참한 파멸을 맞게 하겠지.

헤토르가 그의 형제나 아버지나 아들을 죽인 것에
원한을 품고 말이다. 실로 수많은 아카이오이족이
헤토르의 손에 죽어 끝없이 넓은 대지를 깨물었으니까.

내 아버지는 비참한 전투에서 결코 장강한 편은 아니었지.
그래서 온 도성 안 백성들이 그분을 위해 슬피하는 거란다.

헤토르여! 당신은 부모님에게 말할 수 없는 비탄과 슬픔을
주셨어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내게 쓰라린 고통이 남게 될 거예요.
당신은 죽을 때 침상에서 나를 향해 손을 내밀지도 않았고
내가 빗맞으로 눈물을 흘리며 두고두고 마음속에 간직할
지혜로운 말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녀가 울면서 말하자 여인들이 거기에 맞춰 슬피 울었다.

이번에는 그들 중에서 헤카베가 큰 소리로 호곡을 선창했다.

“헤토르여! 모든 자식들 중에서 나는 너를 마음속으로 가장
사랑했노다. 너는 살아생전에도 신들의 사랑을 받더니
죽음의 운명에 처했어도 신들은 너를 염려해주시는구나.

나의 다른 자식들은 준족 이킬레우스가 사로잡게 되면
모조리 추수할 수 없는 바다 건너 사모스와
임브로스와 연기 나는 램노스에 갇다 팔았지.

하지만 그자가 달이 긴 청동으로 너의 목숨을 빼앗았을 때는

네가 죽인 그자의 전우 파트로클로스의 무덤을 여러 번 씌이나
너를 끌고 들었지. 그래도 친구를 일으켜 세우지 못하면서 말이다.
그런데도 너는 지금 미처 은공의 신이 풀론이 달려

내려가 부드러운 화살로 쏘아 죽인 사람같이
이슬처럼 싱싱한 모습으로 집 안에 누워 있구나.”

그녀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고 끝없는 비탄을 불러일으켰다.
그러자 그들 중에서 세 번째로 헬레네가 호곡을 선창했다.

“헤토르여, 모든 시아주버니들 중에서도 내가 마음속으로
가장 아끼던 분이여! 내 남편은 신과 같은 일렉신드로스이며
그이가 나를 트로이아로 데리고 왔지요.

아아, 그전에 내가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그곳 고향을 떠나온 지도 어언 스무 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대에게 여태껏 나쁜 말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혹시 시아주버니든 시누이든 고운 옷을 입은 동서든 시아머니든
—시아버지께서는 친아버지처럼 늘 상냥하게 대해주셨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집 안에서 꾸짖기라도 하면, 그대는 언제나

그대의 상냥한 마음씨와 친절할 말로 그들 좋게 달래며
그러지 못하게 말리곤 했지요. 그래서 나는 비통한 마음으로
그대와 함께 내 자신의 불행을 슬퍼하는 거예요.

이제 드넓은 트로이아에는 내게 상냥하고 친절히 대해줄 사람은
달리 아무도 없고 모두들 나를 보고 몸서리치니 말예요.”

775

그녀가 울면서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맞춰 수많은 백성들이
비탄했다. 이윽고 백성들 사이에서 포리아모스 노인이 말했다.
“트로이아인들이여! 자, 이제 도성 안으로 장작을 해오시오.
마음속으로 아카이오이족의 음흉한 매복을 두려워 마시오.
아킬레우스가 검은 함선들에서 나를 돌려보낼 때 열두 번째
새벽이 오기 전에는 우리를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780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짐수레들 밑에서 소들과
노새들에 멍애를 엮더니 지체 없이 도성 앞에 모였다.
아흐레 동안 그들은 수많은 장작을 널라 왔다.

785

그러나 열 번째로 인간에게 빛을 가져다주는 새벽이 밝았을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대담한 헥토르를 밖으로 들어내어
그의 시신을 높다란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 불을 질렀다.

이른 아침에 태어난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새벽이 나타나자
이름난 헥토르의 장작더미 주위로 백성들이 모여들었다.

790

그러하여 그들이 모두 다 모였을 때
먼저 그들은 반짝이는 포도주로 불기가 닿은
장작들을 빠짐없이 모두 졌다. 이어서 그의 형제들과
친우들이 비탄에 잠겨 그의 흰 뼈를 주워 모았고
그들의 불에는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들은 뼈를 집어 황금 항아리에 담고

795

그것을 다시 부드러운 자줏빛 옷들로쌌다.

이어서 그들은 지체 없이 항아리를 빈 구렁이에 넣고 그 위에
큰 돌들을 촘촘히 쌓아 올렸다. 그들은 서둘러 봉분을 쌓고
홀륭한 장강이받이를 댈 아카이오이족이 때가 되기도 전에
기습해 오지 못하도록 사방에 피수병들을 세웠다.

800

봉분을 쌓고 나서 그들은 돌아갔다.

그러하여 그들은 모두 모여 제우스의 양자인
포리아모스 왕의 집에서 상찬을 대접 받았다.

이렇게 그들은 말을 길들이는 헥토르의 장례를 치렀다.